



수료식을 마치고 선교사로 임명된 이들과 교단 지도자들이 함께 기념 촬영했다.

예장합동 GMS 장기 선교사 14명 파송

미주 OMTC 제5기 선교사 훈련 수료식 및 선교사 임명식

GMS(Global Mission Society, 예장합동 총회세계선교회) 소속 장기 선교사 14명이 미주 OMTC 훈련원(이사장 박무용)을 통해 탄생했다. GMS 미주 OMTC는 제5기 선교사 훈련 5주 과정을 모두 마치고 드디어 2월 8일 오후 3시 GMS 선교사 임명식을 가졌다.

애너하임의 GP(Global Partner) 선교센터 예배실에서 거행된 임명식에는 한국 GMS 본부 김찬곤 이사장, 조용성 GMS 선교총무, 미주 OMTC 이사회 이상돈 서기, 문상무 총무, 민찬기 회계, 조동원 이사, 정영기 이사가 참석했고 미주 지역에서는 예장합동 미주서부노회 박종대 노회장과 박현성 목사, GMS 미주지부 김영록 지부장과 임원들이 참석하여 말씀과 축사 및 격려사로 신임 선교사들을 축복했다.

이번 훈련은 3주 동안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종일 집중훈련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훈련생들은 집중훈련 전에 2주 동안 각 선교지에서 미션 퍼스펙티브(Mission Perspective)를 공부하고 참석했다. 훈련감사로는 김찬곤 이사장, 조용성

선교총무, 이상돈 이사, 문상무 총무, 민찬기 회계, 조동원 이사, 정영기 이사, 김영록 지부장, GMS 중미 지부장 김진근 선교사와 OMTC 훈련원장 이병구 선교사 등 교단의 주요 지도자뿐 아니라 풀러신학교의 박기호 교수, SOMA대학 총장 이광길 교수, 이상훈 교수, GMU 조나단 강 교수, KWMC 사무총장인 이승중 목사, GP 미주 대표 김승봉 선교사, 미주 OM 대표 김일권 선교사, 미주 고신선교회 대표 김해진 선교사, 박시경 교수, 김기동 목사, 남가주사랑의교회 선교담당 이근 목사 등 선교 전문가들이 강의를 맡았다.

이번 훈련에서는 중미에서 사역 중에 있는 4명의 선교사들과 캐나다

에서 원주민 사역을 하고 있는 3명의 선교사들도 참여해 GMS 중미지부와 캐나다지부로 파송 받았다. 특히 이번 제5기 선교훈련에는 북한에서 대학을 마치고 충신신대원을 졸업한 북한 선교 전문가인 K 선교사가 훈련을 받고 GMS 북한 선교전략을 위해 선교사로 헌신한 점, 한인 1.5세가 이번 훈련에 참여했다는 점 등 큰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GMS는 예장합동 측이 세운 선교단체이며 현재 98개국에 2,543명 선교사를 파송한 한국 최대 선교단체다. OMTC의 이병구 훈련원장은 인도 선교 15년 후, 풀러신학교에서 선교목회학 박사 학위를 받은 선교 전문가이다.

남가주사랑교회 오는 25일 창립

남가주사랑교회가 오는 2월 25일 주일 오후 4시 창립예배를 드린다. 이 교회는 현재 게이트웨이신학교의 신약학 교수인 안상희 목사가 담임으로 시무한다.

늘사랑교회는 교회 창립에 앞서 대전늘사랑교회 정승룡 목사를 초

청해 말씀사경회를 23일(금) 저녁 7시, 24일(토) 저녁 7시, 25일(주일) 오전 10시 45분에 개최한다.

교회는 1465 W.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 92833에 위치해 있으며 전화는 714-525-0191이다.

순복음 북미총회장에 진유철 목사

순복음세계선교회 북미총회장에 진유철 목사(나성순복음교회)가 지난 4일 임명됐다. 순복음세계선교회 산하 아세안, 아프리카, 중국, 중남미, 유럽, 오세아니아 등 지역별 총회 가운데 하나인 북미총회에는 250여 개 교회, 400여 명 교역자가 소속돼 있어 사실상 최대 규모다. 총회장과 기타 임원은 임명직이며, 부총회장은 선출직인데 진목사는 2014년부터 3년 연속 부총회장에 선출된 바 있다.

북미총회는 지난 3년간 뉴욕순복음연합교회 양승호 목사가 총회장을 연임해 왔다. 순복음세계선교회에 속한 북미주 교회 가운데 장자교회라 할 수 있는 나성순복음교회의 담임이 총회장을 역임했던 경우는 1999년 김성수 목사, 2004년 이태근 목사가 있었다.

1975년 4월 설립된 순복음세계선교회는 설립 1개월 만인 5월에 나성순복음교회에서 북미총회의 전신인 순복음북미연합회를 설립했다. 그만큼 나성순복음교회와는 역사적 인연이 깊은 셈이다.



진유철 총회장

또 북미총회는 순복음세계선교회가 남미를 포함해 세계선교의 거점으로 삼고자 설립한 만큼, 이번에 선교사 출신인 진목사가 총회장이 된 것은 의미가 남다르다 할 수 있다. 특히 그동안 북미총회는 지역적 특성상 현지인 선교보다는 한인 이민자 목회에 치중해 왔으며 선교사 출신이 총회장이 된 경우는 전례가 없었다.

진유철 총회장은 20대에 남미 선교사로 목회를 시작해 17년간 파라과이, 5년간 브라질에서 선교했다. 선교사 시절에는 중남미총회장을 2001년부터 2007년 나성순복음교회에 오기 직전까지 연임한 바 있다. 남가주에서는 베데스다대학교 총장,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미주복음방송 이사도 있다.

김준형 기자

세계기도일, 올해는 수리남 위해 기도

전 세계 교회 여성들이 함께 기도하는 세계기도일이 올해도 3월 첫째 금요일에 180여 나라에서 열린다. 131년을 맞이한 세계기도일은 1887년 다윈 제임스 여사(미국장로교 국내선교부 의장)가 당시 유럽, 아시아 등지에서 미국으로 유입된 이민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을 정한 데서 유래돼 전 세계로 확산됐다.

미국에서는 미주한인교회여성연합회를 중심으로 1979년부터 세계기도일을 지키고 있으며 현재 전 미주 70여 지역, 400여 교회의 여성들이 참여하고 있다. 남가주 지역은 남가주 지부(회장 최순자 사모)가 중심이 되어 오는 3월 3일(토) 오전 10시 동양선교교회에서 예배

를 드릴 예정이다. 세계기도일 예배는 한 나라의 여성들이 작성한 기도문을 전 세계 여성들이 함께 읽고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헌금을 모아 그 나라로 보내는 것이 특징이다. 올해는 수리남 여성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주제로 기도문을 작성했다.

한편, 한국의 경우는 1922년 만국부인회가 중심이 되어 세계기도일에 참여했으며 현재는 한국교회여성연합회가 세계기도일을 지키고 있다. 1930년에 “예수님만 바라보며”, 1963년에 “이기는 힘”, 1997년에 “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듯이”라는 주제로 기도문도 세 번이나 작성한 바 있다.

여러분의 도우미
카카오 렌트카가 있습니다.
급하게 차가 필요하신가요?
KOREA TOWN
877-251-4489
CACAO RENTAL CAR
2866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 크레딧 카드 없는 분
- 국제운전면허증
- 타운 내 공항 픽업
- 장기 렌트카
- 보험청구 렌트카
- \$18/일, \$350/월부터

그린카피어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킹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할인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ASE CERTIFIED LA Auto Tech
믿고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Warranty for All Work Performed

- Brake Service
- Tune-Ups
- Computer Diagnostic
- 전기계통
- 10K Service
- A/C Service

• 월~금 : 8AM~6PM, 토 8AM~4PM • 3200 W. Olympic Blvd., LA, CA 90006
T. (323) 735-3180

남가주 3 사랑교회 하나님의 사랑이 뛰는 곳

“우리 소망, 하나님 나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 6:33

“말씀사경회 및 창립예배”

| 일시 | 2018. 2.23(금) - 25(주일) | 장소 | 남가주 늘사랑교회

강사: 정승룡목사

약력: 현 대전늘사랑교회 담임
현 KOSTA강사
전 침미준 대표
한국선교연구원선정
한국의 건강한 10대 교회

담임목사: 안상희

현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 교수
전 온누리침례교회담임

부흥회

첫째날 23일(금) 저녁 7시 둘째날 24일(토) 저녁 7시

하나님 나라와 복음 하나님 나라와 성령

셋째날 25일(주일) 오전 10:45

하나님 나라와 교회

창립예배

2월 25일 주일 오후 4:00

주께서 세워가시는 교회

| 오시는 길 |
Brookhurst St. 남가주 늘사랑교회 Euclid St.
아리랑마트 Calvary Community Church

W. Orangethorpe Ave
1465 W.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 92833

남가주늘사랑교회 Everlove Baptist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 T. 714) 525-0191, 714) 482-5466 | EBCSoCal@gmail.com



기쁜우리교회가 창립 1주년을 맞이해 기념 감사예배를 드리고 직분자를 세웠다.

세상 향해 소금과 빛의 모습 드러내길

기쁜우리교회 창립 1주년 맞이해

기쁜우리교회가 창립 1주년을 맞이해 감사예배를 드리고 임직식을 거행했다. 지난 2월 11일 주일 오후 5시에 기쁜우리교회 본당에서 드린 이 예배에서 김경진 담임목사와 성도들은 교회의 지난 1년을 회고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새로운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었다.

2016년 9월부터 창립 준비 기도를 시작한 이 교회는 지난해 2월 12일 글렌데일에 있는 유나이티드 커뮤니티 교회를 빌려 창립했다. 당시 설교는 강준민 목사(새생명비전교회), 축사는 김한요 목사(베델한인교회)가 했었다. 올해는 반대로 김한요 목사가 설교하고 강준민 목

사가 축사했다. 김한요 목사는 “교회, 별종의 종족(엡2:14-16)”이란 제목의 설교에서 “교회는 그 자체가 세상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재료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작품”이라면서 “교회가 이제 1년 됐으니 뭘 좀 갖추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지 말길 바란다. 교회는 세워진 그때부터 하나님의 완전한 작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쁜우리교회가 1주년을 맞이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소금과 빛의 모습을 보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예배는 김경진 목사의 집례로 시작돼 원동석 장로가 기도했다. 김한요 목사의 설교 후에 최

공민 장로가 임직자를 소개하고 서약, 안수, 임직 선포 순으로 임직식이 거행됐다. 임직식에서는 장로 9명, 안수집사 7명, 권사 17명이 임직했고 이와 별도로 10명의 장로와 1명의 권사가 추대됐다. 이어 최영무 장로가 임직자들을 대표해 인사했으며 엄기환 목사(예장합동 해외총회 전 총회장)가 축도함으로 모든 행사가 끝났다.

이날 행사에는 교회 본당이 가득 찰 정도로 수많은 성도와 축하객들이 참여했다. 한 성도는 “창립예배 이후 이렇게 많은 손님들이 교회를 방문한 것은 처음”이라며 감격을 감추지 못했다. 김준형 기자



기도회에서 참석자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

아브라함처럼 생을 걸고 기도하자

OC교협 기관·단체장 초청 조찬기도회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이서 목사)가 2018년 오렌지카운티 기관장 및 단체장을 초청해 조찬기도회를 열었다.

지난 10일(토) 오전 7시 30분에 은혜한인교회에서 열린 기도회에는 오렌지카운티 기관장 및 단체장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회장 박재만 목사의 인도로 후원 이사장 김영수 장로가 대표기도하고 부회장 이관우 장로의 성경봉독 후에 아니노스 찬양단이 특송했다.

이어 회장 이서 목사가 ‘부흥을 위한 기도(창18:16-33)’란 제목으로 설교를 전했다. 이목사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했을 때 아브라함은 뜻과 다른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고,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참상을 듣고 금식하며 자기의 죄를 고백했다”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교회와 단체, 한국과 미국을 위해서 울부짖으며 기도하자”고 말했다.

OC교협 서기 김찬희 목사의 광고와 민경엽 목사(나침반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부회장 조현영 목사의 인도로 합심기도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미국과 한국의 영적 회복과 한반도 평화, OC 지역교회와 선교단체, 신학교를 위해, OC 지역 기관 단체와 이민가정, 차세대

를 위해 기도했다. 정치 지도자들을 위한 특별한 기도 시간도 있었다. 이서 목사의 인도로 최석호 거주 하원의원, 김종대 OC한인회장, 영 김 연방 하원의원 후보, 박선영 시의원 후보를 축복하는 시간이었다.

이어진 조찬 모임은 OC교협 미디어위원장 윤우경 집사의 사회로 OC장로협의회 회장 한창훈 장로의 식사기도 후에 OC교협 이사장인 민승기 목사의 폐회기도로 마쳤다. 한편, 최석호 의원, 김종대 한인회장, 영 김 후보, 한기홍 목사의 축사도 있었다.

효사랑선교회에서 자원봉사하세요



선교회 김영찬 대표, 유수진 간사, 한나 박 사무장

오렌지카운티에 위치한 효사랑선교회가 최근 미국 대통령 자원봉사상(The President's Volunteer Service Award) 추천 기관으로 선

정됐다. 이제 효사랑선교회에서 일정한 이상을 자원봉사하면 선교회 측에서 그 봉사 시간을 인정하여 연방

정부 단체인 전국 커뮤니티 서비스공사(The Corporation for National & Community Service, CNCS)에 보고하고 공사의 승인 아래 자원봉사시간에 따라, 금·은·동 형식으로 다른 등급의 상을 받는다.

효사랑선교회는 오는 2월 24일 오전 10시 선교회의 각종 봉사 프로그램에 대해 8학년 이상 학생과 성인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 장소는 부에나파크에 있는 엘러스이벤트 센터(Ehlers Event Center, 8152 S.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의 헤리티지홀(Heritage Hall)이다.

문의) hyosarangus@gmail.com 714-552-6333

유학생과 신학생 위한 세금 보고 강좌

그레이스미션대 제임스 구 교수 강의

유학생과 신학생들을 위한 무료 세금 보고 강좌가 오는 23일(금) 오후 1시부터 2시간 동안 열린다. 선교와목회를위한정보센터(Information Center for Mission and Ministry)가 주관하는 이 강좌는 그레이스미션대학교(201 S. Basque Ave. Fullerton, CA 92833) 도서관 GL2 강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강좌는 유학생과 신학생들이 세금 보고를 함에 있어서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강의는 세금 보고를 위한 조건, 고용과 소득에 대



제임스 구 교수

한 이해, 세무 보고가 주는 혜택, 신학생들에게 적용되는 특혜 등을 다룬다. 강사는 그레이스미션대학교 행정처장이며 교회행정과 IT 전문가인 제임스 구 교수다. 강의 자료는 당일 참석자들에게 무료로 제공된다. 문의) 714-393-4595

오바마케어 승인 프로그램
크리스천 헬스케어
 * 연중 아무때나 가입이 가능.
 * 골드 프로그램은 본인부담금(\$500)을 지불하지 않음

Christian Healthcare Ministries
 미주최대 의료협동조합 www.chman.org 714.738.1234

ACCREDITED CHARITY
 BBB bbb.org

www.saseducation.weebly.com
실무 10년의 노하우
SAS 인가컨설팅, Inc
 대표 Paul Kim, Ph. D
 Tel : (213)531-7215, (909)993-3028
 2975 Wilshire Blvd, Suite B01, Los Angeles, CA 90010

- 직업전문대학인가(ACCSC)
- 신학교 인가(TRACS, ATS)
- BPPE 신규 및 재승인
- 어학원/온라인 프로그램

summitus37@gmail.com

Practicing Excellence with Winning Strategy

JEONG & LIKENS는 상법, 민사, 지적재산권, 노동법, 부동산, 건설 등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함께합니다.

상법/민사

- 물품/서비스 거래 계약 위반
- 채권/채무/파산 관련 소송
- 프랜차이즈 관련 소송
- 비즈니스 파트너 간 소송
- Non-profit 협회 관련 소송
- 장애자법(ADA) 관련 소송
- 비즈니스 관련 보험사 상대 소송

지적재산권

- 디자인 등 저작권 등록
- 의료 관련 저작권 침해 소송
- 영화, 음악, 방송 관련 저작권 소송
- 상표권 등록 관련 소송
- 상표권 침해 관련 소송

노동법

- 고용계약서/직원핸드북 작성
- 오버타임 등 노동법 관련 소송
- 차별, 보복 행위 관련 소송
- 부당해고 관련 소송

부동산/건설

- 부동산 매매/에스크로 관련 분쟁
- 비즈니스 매매 관련 소송
- 커머셜 리스 관련 분쟁
- 은행과 커머셜론 관련 분쟁
- 건설 관련 분쟁
- Mechanics lien/stop notice 관련 소송

- 다수의 대형 로펌 상대 소송 승소
- 미주류 대형기업을 상대로한 다수의 승소 경험
 - 1) 미국 소프트웨어 대기업이 제기한 지적재산권 소송 **성공적 방어**
 - 2) 대형 언론사가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 **성공적 방어**
 - 3) 미 대형 군수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승소**
 - 4) 대형 부동산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승소**
 - 5) 전문 변호사들도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건설 관련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
 - 6) 10년이 지난 전문가 업무상 과실 사건, 공소시효문제 해결하여 **승소**
- 수입 거부된 소송, 전문 변호사들도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불리한 소송 **이례적 승소로 해결**
- 지적 재산권, 부동산, 채권추심, 건설, 노동법 등 관련 다수의 상법 소송 승소
- 중소기업중앙회, 한인의류협회, 한인부동산협회 및 다수의 기업에 고문변호사로 활동

정찬용

Loyola Law School, J.D.
Senior Articles Editor,
Loyola International & Comparative Law Review
Published an article on Antitrust Law, Loyola International & Comparative Law Review
Won 2006 Annual Writing Competition,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Law & Management



Tel. 213.688.2001

1055 W. 7th Street, Suite 2280
Los Angeles, CA 90017

J&L JEONG & LIKENS, L.C.
www.jeonglikens.com

“풀러 코리안센터, 이론과 실천 균형 갖출 것”

개원식 앞두고 초대 원장 김창환 박사 인터뷰

풀러신학교가 오는 2월 26일 코리안센터 개원식을 개최한다. 한국어 목회학과와 선교학과를 통합해 코리안센터를 출범시키기로 결단하는 과정에서 구조조정으로 인한 진통을 다소 겪었던 풀러신학교가, 이번 개원식을 계기로 상처를 봉합하고 위기를 넘어 비상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특히 풀러신학교가 그간 수많은 한국인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을 양성해 온 만큼, 한국교회와 한인교회들의 관심은 매우 남다르다. 이에 본지는 풀러신학교 코리안센터 초대 원장인 김창환 박사를 만나 이 센터의 취지와 비전, 목표 등에 대해 들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 출신인 김 원장은 장로회신학대학교에서 목회학석사(M. Div.)와 신학석사(Th. M.)를 거쳐 케임브리지대학교에서 철학박사(Ph. D.) 학위를 취득했다. 또 영국의 요크세인트존대학교 신학과 공공 영역 석좌교수로도 12년간 재직했다.

-먼저 코리안센터에 대해 소개해 달라.

풀러신학교는 1947년 개교한 이후 세계 복음주의의 학문을 주도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한국어 프로그램은 1990년대 초에 목회학과 선교학을 중심으로 발전했으며, 현재까지 1,2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최근 설립된 코리안센터는 그 두 학과를 연합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사역자들에게 교육 프로그램과 연구 자원을 지원하는 사역을 맡으며 연구와 출판을 통해서 교회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코리안센터는 풀러신학교 내의 다른 여러 센터, 한국 및 세계 각지에 있는 복음주의 기관들과 협력하여 격변하는 시대에 맞는 신학과 선교학을 연구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코리안센터에는 현재 D.Min., D.Min.GM., M.A., Th.M., D.Miss. 등 5개의 프로그램이 있으며, 향후 몇 년간 추진하는 전략적인 방향은

네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현 프로그램의 활성화와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 둘째는 한인 학생들과 졸업생에 대한 교제와 네트워킹 강화, 셋째는 한국신학과 선교학에 대한 연구와 출판 증진, 넷째는 한국교회와 미국 등에 있는 한인교회와 지역사회에 기여 등이다.

-두 학과를 코리안센터로 통합한 이유는 무엇인가.

두 학과를 따로 운영할 경우 장점도 있었지만 효율성 면에서 단점이 있었고, 특히 행정과 운영 등에서 중복투자가 발생해 왔다. 그래서 효율성 제고를 위해 통합을 결정하게 됐고, 기존 두 학과의 장점을 잘 살리고 공유해 여러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려 한다.

-코리안센터 출범 이후 중점으로 둘 사안은.

1년 정도는 통합을 완성하는 데에 치중하려 한다. 두 학과가 기존에 학문적으로 추진해 오던 사안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잘 계승하면서 함께해 나갈 프로그램들을 연구할 것이다. 현재의 프로그램들도 비판적 검토를 거쳐 차별화하고, 더 나아가 한국의 목회학 및 선교학 등을 연구해 출판 및 상담 등을 하려 한다. 한인교회들과 연계하고 그들이 가진 이슈에 대해 함께 고민하려는 계획도 갖고 있다. 풀러에는 이미 목회와 선교 사역을 하 시던 분들 중 좀 더 학문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다. 그분들이 이론과 실천의 균형을 갖추고 보다 깊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우려 한다.

풀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복음주의라고 보는데, 근본주의도 자유주의도 아닌 ‘말씀 위에 바로 선’ 신학으로 복음의 주류를 지켜나갈 것이고, 민감한 이슈들도 피하기보다 직시하려 한다. 특히 미국사회에서 여전히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인종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 1년에 한 번 컨퍼런스를 열 것이다.

-최근 신학교의 현실을 진단해 주신다면.

한국도 미국도 여러 모로 신학대학들이 도전받고 있고 위기감이 있다. 교세가 축소되면서 신학생 숫자가 줄고 위축되는 것도 사실이다. 여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가 모두에게 숙제다. 풀러는 학생수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는 편인데, 이러한 도전을 어떻게 직시하고 극복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먼저 온라인 과정을 활성화하면서도 멘토링을 강화하고, 풀러 스튜디오나 풀러 팀을 통해 단지 목회자를 양성하는 차원을 넘어 교인들과 사회에 기독교적 메시지를 전하려 한다. 또 리더십 플랫폼을 갖춰 평신도 리더십을 양성하고 계속 교육을 하려 한다.

-말씀하셨듯이 교회의 위기가 신학교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나 신학 교육이 바로 서면 교회 위기를 극복할 열쇠가 될 수 있지 않겠나.

교회가 정말 투명해야 하고, 배타적 종교단체로 머무는 게 아니라 선지자적으로 사회를 섬기고, 사회의 비평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공공성을 이뤄나가야 한다. 그런 점에서는 신학교 자체가 자성해야 한다. 어떻게 하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의롭게 일을 해야 하는데, 특별히 한국교회의 상황 보면 그런 공공성이 너무 결여돼 있고 교회를 너무 사유화하지 않았나 한다. 큰 교회와 작은 교회의 괴리감도 크다. 그런 점에서 교회와 신학교가 다같이 힘을 쓰고, 공공적인 윤리에 대해 도전하고, 우리 자신이 서로 비평하고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신학교의 한국인 교수들과 스태프들도 계속 모여서,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한국교회와 한인교회를 섬길 것인가를 논의하고 있다.

-사회적·신학적으로 가장 큰 이슈인 동성애와 이슬람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김창환 원장이 풀러 코리안센터의 비전을 설명하고 있다.

동성애 문제는 아주 민감한데, 풀러가 갖고 있는 원칙적 입장은 복음주의다. 성경적 원칙에 따라 동성애 행위에 대해서는 거부하되, 동성애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접근하고 돌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그러나 동성애자들이 우리 학교 학생이나 교수가 되기는 어렵다.

이슬람에 대해서는 상당히 열려 있다. 열려있다는 것은 이슬람을 받아들이기보다는, 기독교가 상당히 배우고 반성해야 할 점이 있다는 입장이다. 어떻게 이슬람권에 접근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 이슬람 근본주의자들과 이슬람을 믿는 일반인들에 대해 구분해야 한다. 근본주의를 경계하고 비판하되, 일반인들에게는 선교적 접근을 해야 한다.

-풀러신학교는 한국교회와 한인교회의 사랑을 많이 받아 왔는데, 이

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유럽과 미국의 교회들은 세속화와 교인 급감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사회학적으로 많은 원인 분석이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말씀의 공공성이 교회를 통해 드러나지 못했다고 본다. 한국인들과 한인들은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고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열정이 훌륭하다. 이는 매우 자랑스럽고 지켜나가야 할 부분이다. 하지만 그것이 배타적·근본주의적인 입장으로 빠져서는 안 된다. 말씀을 계속 나누고 선포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마음들이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풀러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고, 코리안센터가 많은 도전과 도움을 줄 것이다.

길버트 유기자

· 이번에는 무슨 차로 할까? · 요즘 스페셜이 있는 차가 무엇일까?
· 자동차 구입할까? · 리스 할까? · 내가 용자가 될까?
· 어떤 해를요? 10년의 경험을 기반으로 고객님의 고민 해결을 한 달에 남려 드리겠습니다.
· 전화 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다 둘러보시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6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 찰리 정

현대 HYUNDAI
Pueño Hills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문/사/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J.C Superstar 뮤지컬 단원모집

대상 : 초, 중, 고, 대

고문위원 : 코너스톤 교회 이종용 목사
자문위원 : SBS 생활의 달인, 푸르기 탐구생활 이상호PD

아이비 유학 Torrance / Irvine / LA shelbykwon65@gmail.com
T.(949)329-8222, (949)864-9162

CARAVAN CANOPY
Division of Faith

교회 이동 디스플레이 및 디자인 전문

카라반캐노피는 대형프린팅 분야에서 18년의 전문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안 수정, 로고 제작, 한글 캘리그래피 디자인 등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며 고성능 프린트 작업으로 최고의 만족도를 약속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모든 디스플레이 제작, 맞춤형 서비스

- 현수막 | 천막
- 접이식 배너 | 디스플레이
- 프로모션 상품
- 디자인서비스

VINYL BANNERS
2' X 5' with grommets : \$25 Plus tax if applicable
4' X 5' with grommets : \$50 Plus tax if applicable

MESH/POLY FABRIC BANNERS
2' X 5' with grommets : \$35 Plus tax if applicable
4' X 5' with grommets : \$70 Plus tax if applicable

플래그, X 배너 거치대, 벽걸이 포스터, 미디어벽, 롤업배너, 현수막

14600 Alondra Blvd, La Mirada, CA 90638 | T. 877.922.6679 | 한국어. 714.367.3046 | www.caravancanopy.com

<선교 부흥을 회복하라 - 53>

3세대가 연합예배 드리며 서로 위해 기도하는 덕개교회

필자는 지난 20여 년간 미주에서 목회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목회 대상이 있다. 차라리 최후의 미전도 종족이라고까지 많은 목회자들이 농담 삼아 말하는 한인 2세대이다. 한국교회도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거의 반수가 된다 하고, 미주도 점점 주일학교가 약해져가고, 대학에 들어가서는 한인 청년의 10% 정도만이 교회에 머무른다는 통계를 보며 큰 책임감과 안타까움을 갖게 된다.



이상훈 목사
주비전교회 담임

지난 주 한국 방문중에 경기도 양주에 있는 덕개교회(이찬영 담임목사)의 주일 예배에서 말씀 인도를 하였다. 창립한지 58주년이 되는 교회니 전통적 교회라고 보아도 될 것이다. 양주가 지하철이 연결되어 많이 발전되었다고 하나 아직 논밭이 더 많은 곳이었다.

덕개교회는 이찬영 담임목사님이 부임하신 후로 지난 5년 여간 매월 첫째 주일을 전 세대 연합예배로 드리고 있었다. 마침 필자가 간 주일이 첫째 주였기에 3세대 주일예배를 드렸다. 첫 장면부터 마지막 축도까지 필자는 감동과 은혜로 큰 깨달음을 얻은 예배였다. 훈련된 성도들의 예절과 밝은 모습들, 여섯 분의 시무장로님들의 연합되고 소망찬 어울림들, 목사님의 비전에 함께 하는 온 성도들의 예배의 모습들이 가히 다른 교회들에게 모범이 되겠다 싶은 감동을 주었다.

예배 찬양을 중고등부 학생들이 담당했는데 연주팀들의 호흡과 보컬팀들의 다정한 음식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온 교우들이 같이 어우러진 찬양은 모두가 하나되게 했고 성령의 임재가 강하게 느껴졌다. 대표기도는 고등부 학생, 성경봉독은 초등부 자녀가 했다. 특송은 3세대로 이루어진 가정이 맡았다. 너무나 다복했고 은혜로운 모습들이었다.

그중에 필자에게 가장 큰 감동의 시간은 모든 세대가 어우러지는 연합 통성 중보기도 시간이었다. 1세대가 3세대를 향해 그들 하나하나를 다 말아서 안수하며 기도하는 모습, 2세대는 1세대를 축복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3세대는 엄마 아빠 세대를 위해 모두가 기도를 주고 받는 사도행전적 교회의 예배가 양주 땅에 있었다. 아! 이 장면을 온 교회가 닮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어른들의 예배를 우선시하며 자녀들의 예배는 상대적으로 홀대하지는 않았는가? 아예 자녀들은 밖에서 뛰어놀아 버려 두지는 않았는가?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겠다는 생각이 1년에 단 2번 어린이 주일과 성탄절 축하예배 때만이 아니었는가? 덕개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만감이 교차하며 많은 반성을 했고 회개의 기도가 쏟아져 나와 추스리기가 힘들었다.

이 예배를 통해 이찬영 담임목사는 그의 목회 비전을 모든 성도들과 나눈다 했다. 교회가 한마음으로 할 수 있는 선교의 비전, 단기선교, 학생선교, 현지 사역자 파송 및 지원 등 다양한 꿈과 비전을 나누고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그 꿈과 같이 자라나는 것이다. 필자는 온 교우들을 격려하며 덕개교회가 많은 교회들을 아름답게 인도해주는 롤모델 교회가 되기를 축복하였다.

행복설계사 강태광 목사 칼럼

포레스트 검프에게서 배운다

1994년에 개봉되어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포레스트 검프(Forrest Gump)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는 포레스트 검프의 어린 시절부터 30년의 세월 속에서 포레스트 검프의 삶을 보여 줍니다. 포레스트는 원래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에 다리에 보조기구를 차지 않으면 걸을 수 없는 장애아였고, 지능도 아이큐 75로 학교 입학에도 어려움을 겪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포레스트도 가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열성적이고 자애로운 어머니가 있었고, 아무도 받아 주지 않는 학교에서 유일하게 그를 받아주는 여자 친구 제니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포레스트 자신이 성실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제니의 도움 그리고 자신의 탁월한 성실함에 힘입어 포레스트 검프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군에 입대하여 월남전까지 참전하여 나름대로 전쟁에 기여합니다.

유달리 빨랐던 포레스트는 전쟁에서 죽어가는 전우들을 구합니다. 하지만 친구 버바를 잃습니다. 훗날 친구 버바와의 약속을 지키면서 큰 부자가 됩니다. 이런 행편에서 포레스트는 열심히 삽니다. 그는 돈도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대표

많이 벌고 영예도 얻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가장 소중한 친구이자 아내였던 제니의 죽음을 대합니다. 제니의 무덤 앞에서 포레스트는 보통사람처럼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인생의 조언자였던 어머니와 군대에서 만난 댄 장군, 자신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던 두 친구 제니와 버바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소중한 사람들을 회상하며 눈물 흘리는 포레스트는 행복한 사람으로 그려집니다.

당초 원작 소설을 영화로 만들려 했을 때에 영화사들은 부정적이었습니다. 대중적 관심을 얻을 만한 흥미로운 소재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포레스트 검프가 개봉되자마자 연일 매진되는

기업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67회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 주요 부문의 수상을 휩쓰는 화제의 영화가 되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포레스트 검프에 열광했을까요? 포레스트가 보여준 순수함과 신실함 그리고 그것들로 누리는 참다운 승리와 진정한 행복에 대하여 환호했습니다. 포레스트는 신체도 정신도 모자랐지만 그는 신실했고 더 나은 삶의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근사한 승리와 행복을 누리입니다.

필자는 포레스트 검프의 삶에 박수를 보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명석한 두뇌와 건강한 신체를 갖고도 승리와 욕심의 노예가 되어 비굴하고 치사하게 살아갑니다. 속고 속이며 처절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수많은 시험들과 경쟁에서 이기는 것 같지만 인생 마지막 지점에서 패배자가 되어 결국 실패자로 인생을 마감합니다. 반면 포레스트 검프는 늘지는 사람으로 살았지만 인생 경주 결승점에서 승자가 됩니다.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진정한 승자입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음식을 먹던 나사로의 승리처럼 포레스트 검프의 승리는 아름답습니다.

성도들의 정신건강 위한 위생병 되세요

GIFT상담치유연구원이 KAMT 훈련을 실시한다. 이 단체의 이름 기프트는 영어 'GIFT'이며 Global, Individual, Family, Transformation의 약자를 따서 만들었다. 이 연구원에서는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만들기 위해 그동안 GIFT 전문상담사, GIFT 라이프 스쿨, GIFT For Ministry로 파트를 나눠 전문 상담과 교육, 훈련과 자료를 제공해 왔다. 특히 새 사람 전인치유 수양회는 이 연구원이 주력한 사역 중 하나로, 수많은 한인 1세, 2세대들이 이 사역을 통해 영적 상처를 치유함 받았다.

이번에 새롭게 실시하는 KAMT (King's Army Medics Training) 훈련 프로그램에 대해 연구원 측은 "삶이란 전쟁터에서 부상당한 성도들을 돕는 위생병 훈련"이라고 소개한다. "하나님의 위생병이 되어

교회 안팎에서 힘들어 하는 사람들을 응급처치 하고 도와 줄 수 있는 지식과 기술들을 배워 교회와 커뮤니티를 돕도록 훈련하는 프로그램"이라는 것이다. 이 훈련은 전담훈, 리디아 전 박사 부부가 인도하며 훈련을 수료하면 정신건강 응급 처치사 자격증도 받게 된다.

남가주사랑의교회의 장로이기도 한 전담훈 박사는 MIT와 UCLA를 졸업하고 의사가 됐으며 이후에 트리티 칼리지에서 관계심리학, 탈북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했다. 현재까지 오렌지카운티에서 20년 이상 의사를 해 왔다. 리디아 전 박사는 USC에서 심리학을 공부하고 5년간 교사를 하다가 바이올리대학 교에서 임상심리학 박사 학위를 받



리디아 전, 전담훈 박사 부부

았고 15년 이상 현장에서 상담 사역을 해 왔다.

이 훈련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은 오는 2월 24일(토) 오전 10시, 3월 6일(화) 오전 10시, 3월 7일(수) 오후 7시에 열리며 장소는 GIFT연구원 (156 Soco Dr. Fullerton, CA 92832)이다. 봄학기 개강은 3월 26일.

문의: kamt@giftheal.com
714-522-4438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박기호, 방지각, 김중업,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이 사장 : 임덕순 고문변호사 : 장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ABC상담교육원 뇌 정신건강 세미나

ABC상담대화교육원(이사장 여천기 박사)이 오는 2월 13일부터 3월 27일까지 7주간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뇌 정신건강 세미나를 개최한다. 장소는 터스틴제일침례교회(담임

서병관 목사, 1618 E. 17th St. Santa Ana, CA 92705)이며 강사는 정신과 전문의인 여천기 박사, 상담전문가인 여명미 박사다. 수강료는 교재비와 점심식사가 포함된 240달러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뇌의 구조와

기능, 알츠하이머, 우울증,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와 정신분열, 분노와 자살, 대화기술 등을 다룬다. 3월 10일(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는 대화강사 워크샵도 진행된다. 문의) 949-413-8426

기독교일보 창간 14주년을 축하합니다

순복음의 새 역사를 만드는



주일 대예배

예배 모임

- 1부 오전 7:45 본당
- 2부 오전 9:30 본당
- 3부 (열린예배) 오전 11:30 본당
- 4부 (초용기 목사 영상예배) 오후 1:30 권사회실

- 새벽예배 월 - 토 오전 5:30 / 본당
- 수요예배 수요일 오후 7:30 / 본당
- 금요예배 금요일 오후 7:30 / 본당
- 영아부 예배 (0-2세) 주일 오전 9:30, 11:30 / 본당 영아부실
- 유치부 예배 (3-5세) 주일 오전 09:30, 11:30 / 신 교육관 유치부실
- 유년부 예배 (1-5학년) 주일 오전 09:30, 11:30 / 구 교육관 금요일 오후 7:30 / 구 교육관 (AWANA)
- WG 영어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09:30, 금요일 오후 7:30 / 신 교육관 영어중고등부실
- JVT 한어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09:30, 금요일 오후 7:30 / 신 교육관 한어중고등부실
- MIG 한어청년부 예배 주일 오전 11:45 (3부 예배) / 본당
- EM 예배 주일 오전 11:30 / 신 교육관 3층 EM 예배실
- EM CAM(영어대학부) 주일 오전 11:30 / 신 교육관 3층 EM 예배실, 토요일 19:00
- 실버드림대학 목요일 오전 9:00 / 구, 신 교육관
- 토요한글학교 토요일 오전 09:30 / 구 교육관

담임목사 : 진유철 Senior Pastor Rev. Yu Chul Chin
주소 :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4102



Tel 323 - 913 - 4499
Fax 323 - 913 - 4494
www.lafgc.com
lafgcusa@yahoo.com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스가랴 1:1-6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택하신 백성들을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되게 하기 위하여 특별히 예비하시고 기쁨 부어 세우신 사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성령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을 애타게 전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스가랴입니다.

1. 회개하며 내게로 돌아오라

스가랴 선지자는 다리오 왕 이년 팔월, 예수님이 오시기 전 520년 전 사람입니다.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와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을 등지고 스스로 멸망의 길을 재촉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붙여 70년간 죄 값을 아주 혹독하게 치르도록 계획된 것을 하나님이 없던 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에서 태평성대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잘 지내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백성들은 목이 곧고 마음이 굳었습니다. 강박한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저도 오랜 세월동안 성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성도들이 되게 하려고 애타게 가르쳤습니다. 때로는 기진맥진해져서 목에서 소리가 안 나오면 뱃속에 힘을 끌어올려 진액을 다해서 외쳤습니다. 왜 그런 수고를 합니까? 그 영혼이 이대로는 하나님 마음에 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중인격을 가진 교인이 많습니니다. 교회 와서 기도할 때는 참 잘 믿는 척 하지만,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은 전혀 아닙니다. 입만 살아있는 가증된 교인이 많습니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마 15:8-9)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이름이 기록되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조건과 방법으로 책임지십니다.

2. 너희 열조를 본받지 말라

이스라엘은 BC 538년에 1차 포로귀환

때 돌아왔습니다. 520년 쯤 되었을 때 스가랴는 24년에 걸쳐서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일에 스가랴가 엄청난 공적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집을 짓기에만 관심을 갖고, 성전을 짓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포로에서 해방이 되어, 성전을 재건하라고 많은 돈을 엄청나게 하나님이 챙겨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집만 짓고 자기 재산 늘리는 데 온 정신을 쏟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성전을 짓다가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 결과 곡식 종자까지 까먹어야 하는 흉년을 계속 당했습니다. 그래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선지자의 입을 사용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게로 돌아오라고 애써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기 싫다며 더 멀리 도망갔습니다. 심지어 선지자들이 끝까지 따라가서 붙들고 애걸복걸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러면 멸망하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해도 그들은 오히려 듣기 싫다며 선지자들을 때려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더이상 견디실 수가 없어서, 바벨론을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바벨론에게 붙였을 때 성전이 불타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남남이 났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을 실컷 두들겨 패도록 하신 것입니다.

스가랴와 거의 같은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는 말라기, 학개, 느헤미야, 에스라였습니다. 모두 포로 귀환 이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입니다. 그 때 말라기 3장 7절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도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에 살고 있었습니니다. 성전도 재건했습니다. 성전에 가서 안식일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목만 성전에 드나들고, 예배만 참석할 뿐이지 그들의 영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여기에 와 있는 사람들 중에도 ‘나는 예배를 참석하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믿

음이 좋구나!’라고 생각하며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교회 나왔느냐로 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기준으로 평가하십니다. 우리의 심령이 진짜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 죄악에서 용서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돌아왔느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보십니다.

3. 여호와께 순종하라

말라기 3장 7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이 말은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길마저 완전히 망각하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8-9절에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도 온전한 십일조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십일조 제대로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지 신세를 면치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저 하나님을 이용해 먹자는 생각뿐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 달라고 요청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 뜻대로 쓰임 받게 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조건과 방법으로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은 목자를 보고 우리 목사님은 참 목자고, 선한 목자고, 진짜 목사라고 듣기 좋은 말을 하는데, 그렇다면 왜 본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이것을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너희가 한 번 시험해 보라고까지 하셨습니다.

이어서 11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이 황충은 곡식의 열매만 먹는 것이 아니라 줄기, 잎사귀, 뿌리까지 다 먹어 치우는 황충입니다. 이렇게 두려운 황충이지만 너희가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너희의 일이 내 일이 되어 황충이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영글기 전에 빠져 못쓰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성공을 보장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영적, 인격적으로 온전히 연합되어서 내 생각, 말, 행동이 하나님과 일치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주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V 한국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V 미국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190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LA 미주 복음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미국 신문 설교		AM1310	금요일 오후 2시30분
기독교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박종호 성가사 초청 특별 찬양 집회



“특히 영육간의 고통받는 분들에게 은혜와 치유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 일시 : 2018년 2월 23일(금)
- 시간 : 오후 7:30
- 장소 : 남가주 살롬교회 본당



남가주 살롬교회 (담임목사 : 김준식)
Shalom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문의 : T.(310)787-1004
www.shalomch.org
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혈당수치가 내려가면 행복지수가 올라갑니다

식후 혈당 억제를 도와 혈당 걱정 없는 인생, 이제 **프로지골드**로 활짝 웃으세요.



당뇨환자, 반드시 아연 섭취해야!

프로지 골드

PRO-Z GOLD

혈당수치 조절 및 혈당관리의 시작

나이와 상관없이 빠르게 좋습니다.

당뇨병 환자 10명 중 3명은 자신이 당뇨병 환자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연령대별 당뇨병	30~44세	45~64세	65세 이상
환자 인지율	54.4%	73.2%	81.3%

특히, 30~44세의 젊은 당뇨병 환자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환자가 당뇨병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일본의 전국 약사 1,000명에게 당뇨병 신지식을 가르치고 있는 가사하라 도모코 약사의 저서 "당뇨병, 약을 버리고 아연으로 끝내라" 에서 미네랄의 하나인 '아연'에 당뇨병 치료의 열쇠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당뇨병만으로는 당뇨병이 낫지 않는다. 우리가 먹은 음식은 체내에서 대사를 거쳐 에너지로 변한다. 그 에너지의 재료가 되는 물질을 3대 영양소(탄수화물·지방·단백질)라고 하며, 이 영양소들이 에너지로 바뀌는 작용을 돕는 물질이 비타민과 철, 아연, 마그네슘 등의 미네랄이다. 대사를 촉진하는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부족하면 애써 섭취한 3대 영양소가 에너지로 바뀌지 못하고 체내에 남아돌게 된다. 이러한 상황이 혈액 속에서 벌어지면 고혈당·고지혈증이 되고, 지방세포에 축적되면 비만으로 이어져 혈당이 올라가는 사태를 일으킨다. 이것이 당뇨병의 원인 중 하나다.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부족해서 고혈당이 되었다면 당뇨약을 먹거나 식사량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게 당연하다.
- 아연이 인슐린 작용을 돕는다.
당뇨병 환자들의 가장 큰 고민은 꾸준히 약을 먹어 혈당을 낮추어도 당뇨병이 완치되지 않는 것이다. 인슐린 주사도 맞으면 맞을수록 동맥경화가 진행된다고 해서 마음이 편치 않다. 인슐린은 혈액 중의 포도당을 세포에 들여보내서 높아진 혈당을 낮추는 작용을 하는 유일한 호르몬이다. 인슐린이 작용하지 않으면 체내 세포 대부분은 혈액으로부터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끌어들이지 못한다. 생명을 유지하는 중요한 작용을 인슐린이 하는 것이다. 다행인 점은, 인슐린이 적절히 작용하도록 돕는 영양소가 있다는 사실이다. 바로 아연이다. 아연은 뼈의 신진대사를 비롯해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반드시 있어야 하는 미네랄이다. 간에서 쓸개즙을 만들어 내보내는 통로인 쓸개관에 필요한 효소와 콩팥에서 혈압을 조절하는 효소가 기능을 발휘할 때 인슐린이 필요한데, 이러한 인슐린의 작용에 아연이 꼭 필요하다. 아연이 부족하면 혈당 조절 기능이 나빠지고, 합병증의 위험성이 커지며, 빈혈과 식욕부진, 미각장애, 불면증에 걸리거나 활력이 솟지 않는 등 크고 작은 증상에 시달린다.

아연은?

체내에 소량 존재하지만 생체내 여러 효소의 구성성분이 되고, 핵산의 합성이나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관여하는 필수적인 미량 영양소입니다.

당신의 체내 아연(Zn)은 제 기능을 다하고 있나요?

우리 몸의 필수 영양소 아연(Zn)은 당뇨와 같은 대사질환 및 특정상황에 노출된 분들에게 체내 흡수가 어렵고 흡수가 되더라도 짧은 시간 안에 유실되어 제 기능이 발휘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프로지골드의 특별함은 아연(Zn)의 흡수력과 지속력

송문기 박사의 세계적 특허 Cyclo-z 관련 기술이 적용되어 귀하의 체내 아연(Zn) 흡수력과 지속력이 혁신적으로 증가됩니다. 이제 활발한 아연대사(Zinc Metabolism)가 가져다 주는 변화를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상실험이 입증하는 프로지 골드의 효능!

40년간 Zinc Metabolism을 연구해온 송문기 박사는 아연이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체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 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 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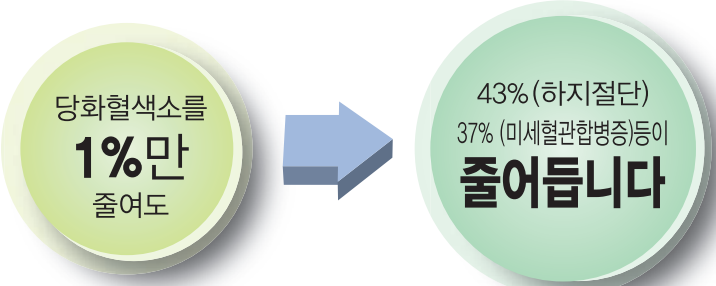
아시나요?

당뇨 치료, 당뇨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첫걸음

당화혈색소(HbA1c) 1%

줄이기에서 시작됩니다

혈당수치를 조절한다고 치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화혈색소(HbA1c) 조절목표는 6.5%

당화혈색소 수치는 당뇨 합병증 발생을 반영하는 가장 좋은 지표입니다. 당화혈색소를 정상으로 유지하도록 혈당을 철저히 조절하면 할수록 합병증 발생은 줄어듭니다.



당화혈색소 수치개선은 일시적 혈당조절이 아닌 신체기능의 회복에서 수치가 나타납니다.

송문기 박사, 그는 누구인가?

- * 국가대표 재미과학자 송문기 박사
- * 40년간 당뇨병, 비만 그리고 난치병 연구
- * UCLA학대 생화학 분야 연구교수
- * 미 연방재향군인병원 개발센터 수석 연구원등

송문기 박사의 Cyclo-Z

인슐린감도개선을 통한 당뇨치료제 신약후보물질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 미국 정부기관(V.A. Hospital)에서 투자지원, FDA승인 및 임상 2a를 성공적으로 진행중에 있으며 신치료제 상용화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송문기 박사는 이러한 업적과 인류사회에 미치는 공로를 인정받아 세계 3대 인명사전중 하나인 Marquis Who's Who에 등재되는 쾌거를 이루어 냈습니다.

1병 \$60+Tax
3병 \$170+Tax
6병 \$330+Tax



핵심은 아연의 흡수
(CHP 특허물질 아연의 흡수율이 획기적으로 증가)

문의 전화 **213.434.1170**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텔레마케터 모집
문의 : 949-864-9162



이날 월례예배를 드린 후 기념 촬영했다.

미주기독한의사협회 월례예배 및 한의사 보수교육 실시

해독요법 권위자 최경송 박사 초청

미주기독한의사협회(정종오 회장)가 지난 11일 오후 4시부터 예수마을교회에서 4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월례예배와 한의사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예배에서는 아프리카 브룬디에서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는 신인환 목사가 선교 보고를 했고 협회 측은 선교 헌금 1천 달러를 전달했다.

보수교육에서는 최경송 한의학 박사가 '해독요법'을 강의했다. 최 박사는 최근 한

국의 소문난 숨은 명의 50인'에 선정됐으며 21세기 문화 키워드 100선 중 대체의학 부문에 선정된 바 있다. 최 박사는 캘리포니아 엠퍼러스 한의대 학장 및 교수를 역임했고 뿌리깊은한의원과 유니케어 대체의학연구소 등을 운영하고 한국 동신대 한의과 대학 교수를 역임했다. 그는 한국에 최초로 해독요법을 소개했으며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킨 바 있으며 이에 관한 여러 책을 저술했다.



특별중보기도회에서 문대룡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기독교인회 남가주지회 조국 위한 특별중보기도회 개최

한미동맹 및 안보와 통일 위해 기도

한국 예비역 기독교인회 남가주지회(회장 김희창 목사)가 지난 2월 10일(토) 영생장로교회(김혜성 목사)에서 특별중보기도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최학량 목사(예비역 중령)가 사회를 맡았으며 해병대 출신의 단김 목사가 기도했다. 최만규 육군 미서부지부장이 성경을 봉독하고 남가주목사장로중창단이 찬양을 했다. 육군사관학교와 대령 출신인 문대룡 목사가 "간음한 여인(요8:1-11)"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

어 성악가 임화자 전도사가 특별 찬양을 했다.

곧 이어진 기도회에서는 부회장 최정학 장로의 인도로 김영구 목사(전 남가주목사회장), 홍순건 목사, 표세홍 목사(미주총신대학원 총동문회장)가 기도를 인도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한미동맹, 국가 안보와 정통성, 통일 등을 위해 기도했다. 모든 행사 후 식사 기도는 김삼학 목사(전 공군 군목)가 했다. 문의) 213-268-9367



생활강좌 수강생들이 자신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베델한인교회 생활강좌 봄학기 수강생 모집

퀼트, 꽃꽂이, 미술, 영어 등 다양한 강좌 마련

얼바인에 위치한 베델한인교회(담임 김한요 목사,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는 생활강좌 봄학기 수강생 신청을 받고 있다. 등록 기간은 2월 11일부터 25일까지이며,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이들도 누구나 수강할 수 있다.

강사진은 다년간 강좌를 지도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오는 3월 7일부터 약 8-12주간 진행된다. 이번 봄학기에는 퀼트 교실, 꽃꽂이 교

실, 기초 미술, 유화 고급, 한국어, 한글 서예, 오토하프 기초, 북가페, 독서 치유, 쉬운 영문소설, 일본어 회화, ESL 말하기와 듣기 등의 강좌가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개설된다.

수강신청은 교회 웹사이트 www.bkc.org로 가서 온라인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은 박선희(전화 714-501-3594) 혹은 이지현(267-909-3681) 씨에게 하면 된다.



LA 지역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이단사를 배양하며, 이단기질을 치료하며, 선교영광을 순종하는 교회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주중세벽 -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주중연락처 T. (213)386-2233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세계선교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함, 사랑의 공동체
3407 W. 6th. #412 (6가와 카탈리나)
T. (213) 909-6473 / www.missionla.org

장태원 담임목사

LA백송교회
역성혁명을 통해 시온의 대로를 만들어 형통의 축복을 받자
3251 W. 6th St. Suite B1, LA, CA 90020
T. (213) 245-6616

김성식 담임목사

LA씨티교회
4322 Wilshire Blvd. #301, LA, CA 90010
T. (323) 833-9090

씨니김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hurch.com

한현영 담임목사

갈보리민음교회
피난처 되시는 예수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제자들의 공동체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강진웅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3가와 Rampart Blvd 교차로 북동쪽에 위치)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믿음 위에 세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서부교회
영적 생명이 넘치는 교회, 복수심을 달이는 교회,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A, CA 90019
T. (323) 939-7323 / www.kwpcia.org

서건오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하나님나라의 비전을 실현하는 교회
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383-2600, (213) 383-2602 / laopendoor.org

박헌성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김민수 담임목사

예일한인교회
치유하는 교회, 회복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1611 Beverly Bl., Los Angeles, CA 90026
T. (213) 975-9191 www.wpcjesus.com

박은중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믿, 마음, 꿈, 열매
325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 (213) 387-1700 C. (213) 500-4737 / olympic-church.org

정장수 담임목사

풍성한 교회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하며 선교하는 교회
2911 Beverly Blvd., LA, CA 90057
T. (213) 381-9490

박효우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신승훈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흠뻑 소, 친 초, 진정한의 흠, 바른교회관의 흠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이명수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콜라지(Calling), 고지(Healing), 기르(Healing), 맞선(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F. (818) 549-9199 / choonhyun.org

민중기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심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 321-4433

곽부환 담임목사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1911 Wilshire Bl., LA, CA 90057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이순환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애가 사랑되고 화해와 화목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강지원 담임목사

LA 동부, 팜스프링스 지역, 라스베가스, 사우스베이, 토렌스

갯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이희철 담임목사

나성한미교회
복음의 본질위에서 성령이 감동하는 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신용환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물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nt Blvd., Downey, CA 90241
T. (562) 674-3016, cell. (562) 417-1800
www.newhopechurchca.com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살롬교회
Shalom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T. (310) 787-1004 shalomch.org

김준식 담임목사

겨울이 아름다운 것은 봄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겨울은 춥습니다. 미국 동부와 조국은 어느 때보다 추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로스앤젤레스의 날씨도 아침저녁으로 상당히 쌀쌀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에 비해 추위를 많이 타는 까닭에 겨울을 좋아 하는 편이 아닙니다. 겨울이 찾아오면 저는 “이번 겨울도 잘 지내야 하는데”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겨울을 좋아하지는 않아도 겨울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겨울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 때 좋아하는 것만 좋아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했던 미숙한 때가 있었습니다. 또한 좋아하는 일만 하면서 살고 싶은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럴 수는 없습니다.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일만 하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만나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저는 좋아하지 않아도 꼭 필요한 것을 사랑하는 법을 터득하는 중에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지 않은 사람도 사랑하는 법을 배우며 익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서로 좋아하라”고 명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요 13:34)고 명하셨습니다.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라”(마 5:44)고 명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좋아하는 감정을 넘어 원수까지도 의지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격려해 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성품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무르익습니다. 슬픈 현실이지만 그것은

리할 줄 압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좋아하지 않아도 꼭 필요한 사람을 사랑할 줄 압니다. 놀라운 사실은 좋아하지 않아도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좋아하는 감정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겨울을 사랑하는 까닭은 겨울나무가 가르쳐 주는 소중한 지혜 때문입니다. 우리는 겨울나무에게서 추운 겨울에 봄을 준비하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나무의 겨울눈은 봄이 아닌 추운 겨울에 준비됩니다. 추운 겨울이 나무는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용히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추운 겨울에 나무(裸木)는 뿌리를 가꿉니다. 나무는 겨울눈에서 희망의 싹을 틔울 준비를 합니다. 그 이유는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봄에 싹을 틔울 기회를 상실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에 가장 먼저 봄소식을 알리는 꽃은 개나리와 진달래입니다. 개나리와 진달래는 추운 겨울 동안에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다가 따뜻한 봄이 오면 가장 먼저 꽃망울을 터뜨립니다. 겨울눈의 보이지 않는 성실한 준비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 조용히 준비한 일들에 대한 열매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기회와 우리의 준비가 만날 때 행통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인생의 겨울을 통과하는 분이 있다면 차가운 겨울을 희망찬 봄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으십시오. 겨울이 아름다운 것은 봄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뜻한 봄은 겨울의 품에서 시작됩니다. 인생의 추운 계절에도 희망의 씨앗을 품고 기다리십시오. 기다리는 중에 아름다운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겨울이 결코 영원할 수 없습니다. 봄은 반드시 옵니다.

새해 맞이 골드 멤버십 정수기 물병 Free

* \$290 월4회 개인 레슨
정회원 한달(무제한 볼사용)

웨스턴골프연습장
New Western Golf

무제한 연습볼!

*골프 멤버십 200볼 상당의 정수기 물병 Free

물병의 6가지 특징
1. 향산화
2. 풍부한 아연
3. 알카리 밸런스
4. 작은 물 분자 클러스터
5. 열소계거
6. 흡이온
건강에 필요한 것 충족

좋은 물 마시는 습관을 위해, 파이물립!
* Classy Style Bottle의 디자인
* 클래식 스타일 캡은 복유림의 감성을 더해 심플하고 기품있는 디자인으로 구현하였습니다.
* 한 손에 들어오는 크리로 그림감 또한 뛰어납니다.
* 가벼운 스텐레스 재질로 휴대하기 편리하며 등산, 여행, 캠핑, 사무실, 가정 등에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 Classy Style Bottle의 구성
* 더블 카트리지가
* 클래식 스타일 캡은 상/하의 특별한 카트리지가 있습니다.

매일 선정

Jacob Choi 최제이콥 T.(310)598-0746
GOLF PROFESSIONAL

양로병원 노인 분들을 위한 제25회 찬송가 경연대회

올해로 23년째 양로병원을 봉사 하던 중에 어려운 형편으로 가족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외로움도 달래고 치매 예방을 위해 찬송가를 암송하므로 매일 소일거리가 생겨, 정신적으로 좋은 결과가 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같이 섬겨주실 봉사자와 동역자 구합니다.

찬양대회 장소와 예배시간
장소 : 중앙장로병원 (Mid Wilshire Health Care Center)
시간 : 2018년 6월 16일(토) 오전 10시
676 S. Bonnie Brae St., LA, CA 90057

상금 후원을 도와주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체크이름 : Loving Church of the Disabled =>L.C.D

협찬
나성열린문교회, 은혜한인교회, 나성순복음교회, LA사랑의교회, 가주처과 대표 오득재 원장, 마동환 변호사 그룹, 팔가순대 뉴욕제과, 한솔종합보험, 한인동포재단, OC 한인회 행복재단(한영재), 라이온스클럽, 올림픽 칼국수, M.G.M

후원 기독교일보, FH미션

장애우사랑교회

연락처 : (213)870-8474/ Fax:(323)870-5522
P.O.Box 742017 Los Angeles, CA 90004

부모사랑 카탈리나 섬 / 엔세나다(멕시코) 바하 멕시코 크루즈 Carnival

5월 \$290

~모든 세금 포함 (항만세/부두세/경부세 등)
~기항지 선박관광 및 일대 탐 답

DATE	DAY	PORT	ARRIVE	DEPART
1/22	월	롱비치 (LA)		5:30 PM
1/23	화	카타리나 섬	7:30 AM	4:30 PM
1/24	수	엔세나다 (멕시코)	8:00 AM	6:00 PM
1/25	목	전일 항해		
1/26	금	롱비치 (LA)	7:00 AM	

www.prttour.com
213. 739. 2222
3170 W. Olympic Blvd. #A
Los Angeles, CA 90006

당신은 어떤 교사가 되기 원하는가 (3)



제이슨 송 교장
새연약초중고등학교

우리는 언젠가부터 가르치는 것에 대한 책임감을 잃어버렸다. 가르치는 자가 자신이 가르치는 내용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않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교과서에 실렸다는 이유만으로, 액면 그대로 다 받아들이기 힘든 정보와 자료를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가르치는 것이다.

여러분 중에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 여섯 살 때 아버지가 아끼는 버찌나무를 도끼로 베었다가 나중에 아버지께 잘못을 고백했다는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이야기는 허구다. 지금까지도 이 사건과 조지 워싱턴의 어린 시절과 관련해서 신뢰할 수 있는 기록은 발견된 것이 없다. 역사학자들은 전기작가가 어린이들에게 교훈을 가르칠 목적으로 영국의 우화에 워싱턴을 삽입한 것 같다고 추측한다.

또한 조지 워싱턴이 1달러짜리 은 동전을 포도맥 강 한 편에서 다른 편으로 집어던졌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것도 말이 안 된다. 이 강은 폭이 1,500미터가 넘을뿐더러 1달러 은 동전이 처음 제작된 것은 워싱턴이 67세로 사망하기 5년 전인 1794년이었다. 그렇다면 62세의 노인인 조

지 워싱턴이 8.1그램밖에 안 되는 가벼운 동전을 1,500미터 이상 던졌다는 말인데, 물리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배후했다면 그럴 수 있겠지만, 굳이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으니 말이 안되는 꾸며낸 이야기라 분명하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이야기들이 지난 2백년 동안 미국 정규 교과서에 버젓이 실려 있었던 사실이다. 수많은 교사가 수많은 학생에게 허구를 진실로 가르쳐 왔다는 말이다.

워싱턴 이야기 같은 경우는 별다른 해악을 끼치지 않는 가벼운 오류니까 웃고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과학 교과서의 핵심으로 자리 잡은지 오래인 진화론은 어떤가? 교과서에서는 여러 가

지 이론 중 하나에 불과한 진화론을 진리로 가정하고, 그 위에서 모든 내용과 자료와 증거를 제시한다. 생물학적 관점에서 인류와 세상의 기원을 다룬 지적 설계론(Intelligent Design)과 창조론(Creationism)도 제시해야 함에도, 그것들은 일절 언급하지 않고 진화론만 다룬다. 그러나 당연히 수업시간에는 진화론에 맞서는 모든 다른 의견은 묵살 당하고 만다. 진화론이 명백한 한계를 갖고 있는 하나의 이론일 뿐임을 지적하는 사람은 ‘꼴통’ 보수 그리스도인이나 케케묵은 골동품 같은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으로 취급당할 뿐이다.

기독교 신앙을 지녔는지 아닌지를 떠나, 이는 분명히 가르치는 자가 철저히 배격해야 할, 편협하며 균형을 잃어버린 시각이자 태도다.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점검하고 분별하지 않는 무책임한 모습이다. 이렇게 자신의 책임을 망각한 교사들이 가르친 결과, 이 시대와 세대 안에 진리와 거짓을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해지고, 어둠의 세력이 진리의 탈을 쓰고 모든 분야와 영역에 파고들어 진치게 됐다.

잡초를 뽑고 꽃을 심다 떠난 사람



박성근 목사
로스앤젤레스한인침례교회

“그는 잡초를 뽑고 꽃을 심다 떠난 사람이다.” 이것은 아브라함 링컨이 평소애 “자신이 세상을 떠났을 때 사람들로 부터 가장 듣고 싶어 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링컨은 불평등과 인권유린의 잡초들을 뽑고 노예 해방이라는 아름다운 꽃을 심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그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취를 남기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축복된 자취만 남기는 것은 아닙니다. 파괴적 자취를 남기고 떠난 사람들도 많습니. 본인이 무엇을 위해 살아 왔느냐가 남길 자취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위해 살다, 무엇을 남기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궁극적 열망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나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살전 2:19-20). 바울이 주님 앞에서 받기를 소원했던 면류관은 금이나 보석으로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전도하고 양육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열망을 가졌기에 그는 가는 곳마다 사람들(제자들)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열망이 필요합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는 열망, 이것이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이 가장 값지고 아름답게 쓰임 받습니다.

가야 할까요? 물론 세상적인 업적이나 큰 재물을 남기는 것도 좋지만, 우리는 보다 더 영원한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복음 전하고, 사랑해서 섬겨야 할 사람들, 이것만이 영원토록 남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제34회 한국기독교출판문화상 대상 성경 문화배경 사전

어린이, 청소년, 신앙일반, 목회자료, 신학 분야 총 92종

제34회 한국기독교출판문화상 대상에 <성경 문화배경 사전>이 선정됐다. 이 상은 한국기독교출판협회가 주관하며, 한국교회의 권위있는 대표적인 출판상이다.

생명의말씀사가 출판한 <성경 문화배경 사전>은 1,744쪽에 달하는 분량에 4부 44장의 주제로 고대 이스라엘과 주변국들의 풍습, 관습, 제도 등 문화적 배경을 소개함으로써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과 사건들에 대한 생생하고 포괄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했다는 심사위원들의 평가를 받았다. 심사위원들은 “이 책을 통해 한국교회 목회자, 신학생, 그리고 교사들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읽으며 가졌던 많은 의문들을 비교적 간단히 그리고 제대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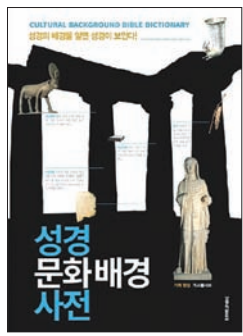
최우수작은 신앙일반 부문 국내 브니엘 <성경 100배 즐기기(신/구약편)>, 국외 토기장이 <오스 기니스의 저항>, 목회자료 부문 국내 쿤란 <21세기 목회 뉴 트렌드>, 국외 IVP <IVP 성경난제주석>, 신학 부문 국내 CLC <조난난 에드워즈의 성화론>, 국외 흥성사 <에스터서로 고찰하는 하나님과 정치> 등이다.

또 어린이 부문 국내 꿈꾸는물고기 <아이러브 바이블(A+B)>, 국외 주니어 아가페 <컬러 스토리 바이블>, 청소년 부문 국내 규장 <데스티니: 하나님의 계획>, 국외 두란노 <차세대 목적이 이끄는 하루> 등이다.

총 220종이 출품된 가운데, 올해는 1차 심사를 통과한 92종(최우수작 포함)을 모두 우수도서로 지정.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영적·지적 필요를 충족시키고자 했다.

또 “어린이 분야의 책들은 주로 시리즈물이 많았는데, 그림과 구성이 놀라게 성장했다. 다만, 전년과 같이 영유아(5세 이하)와 어린이(6-13세 이하) 간 차이가 고려되지 못한 채 하나로 평가해야 해서 어려움을 겪었다”며 “청소년 분야는 전통적으로 출판작이 적었는데 올해도 총 16종(국내 13, 국외 3)이 전부로, 출판작 외 청소년 분야 양서들이 교회학교와 청소년들에게 소개되어 기독교 문화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했다.

우수작 신앙일반 국내 부문에는 복있는사람 <루터의 재발견>, 규장 <예수와 하나가 되라>, 성서유니온 <나를 넘어서는 성경읽기>, IVP <시대 묵상>, 대한기독교서회 <종교개혁 핵심 특목>, 두란노 <생각을 생각한다>와 <서서평>, 서울말씀사



성경 문화배경 사전
가스펠서브
생명의말씀사 | 1,774쪽

<3분 만화설교>, 와웹퍼블 <기도 하나님의 빛> 등 9권이다.

우수작 신앙일반 국외 부문은 두란노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 IVP <이것이 복음이다>, CUP <사랑학교>, DMI <하룻밤에 읽는 종교 개혁 이야기>, 아가페북스 <구약성경, 왜 읽어야 하나>, 생명의말씀사 <완벽한 부모는 없다>, 규장 <하나님의 길에 우연은 없다>, 요단 <하나님 제 편지 받으셨지요>, 좋은씨앗 <땅의 것들> 등 9권이다.

우수작 목회자료 국내 부문은 두란노 <역사지리로 보는 성경>, 성서원 <성경의 노래>, 흥성사 <히브리서: 그리스도인을 위한 통독주석>, 새물결플러스 <다시 쓰는 초대 한국교회사>와 <과학시대의 도전과 기독교의 응답>, 규장 <한홍 목사의 종교개혁 히스토리>, 복있는사람 <설교자의 일주일>, 한국장로교출판사 <성서화 시리즈 1-2권 <천년의 신비>>, <이천년의 침묵, 성서화>, 앤 크리스토프 <설교, 예수님처럼 하라> 등 9권이다.

우수작 목회자료 국외 부문은 CLC <앵커바이블 요한서신>과 틴 데일 구약주석 <시편 I·II>, 두란노 <존 파이퍼의 초자연적 성경 읽기>와 <팀 켈러의 설교>, 규장 <비주일로 신학하기>, 한국장로교출판사 <비블리오 드라마로의 초대>, 그리스심 <내 기억 속의 하나님의 은혜>, 요단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7가지 실제> 등 9권이다.

우수작 신학 국내 부문은 이레서

원 <공동서신의 신학>, 한울 <종교개혁, 길 위에서 길을 묻다>, 장로회 신학대학교출판부 <대화하는 신학>, 익수트 <우르시누스 올레비아누스>, 두란노 <이단논쟁>, 대한기독교서회 <의화단과 한국 기독교>, 흥성사 <고엘, 교회에 맡겨라>, 예영 <복음, 성령, 교회>, PTL <이것이 개혁신앙이다> 등 9권이다. 우수작 신학 국외 부문은 IVP <두 지평>, 생명의말씀사 <성경 무오성에 대한 도전에 답하다>, CLC <히브리 성경 연구>, 좋은씨앗 <신약세계를 형성한 7가지 사건>, 한울 <성서의 처음 역사>, 성서유니온 <바울과 편견>, 한국장로교출판사 <시편적 인간>, 그리스심 <고대의 편지 저술가, 바울> 등이다.

우수작 어린이 국내 부문은 토기장이 <말씀 태교 동화>, 두란노 <햇살이네 별별 가족>, 겨자씨 <우리 아이 인물 성경(12권)>, 언약의책 <행복한 복음 이야기>와 <예수님은 몇 단지에 살아요?>, 꿈꾸는물고기 <홀리베베(소망+사랑 세트)>, 모퉁이들 <우리 아이 떠먹이는 성경 이야기>, 흥성사 <고파개비 마을의 비밀>, 몽당연필 <꼭꼭 씹어먹는 성경(시리즈12권)> 등 9권이다.

우수작 어린이 국외 부문은 생명의말씀사 <세상에서 배울 수 없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조이북스 <말씀이 속속 어린이 성경사전>, 예키즈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과 <엄마 품에서 읽는 시편>, 비전코람데오 <함께 읽는 성경동화 시리즈>, IVP <루터와 이발사>, 두란노 <두란노 어린이 그림성경 놀이북 1> 등 7권이다.

우수작 청소년 국내 부문은 흥성사 <십자가의 길>, 새물결플러스 <창조론 연대기>, 규장 <울인>, 사랑플러스 <십대, 성경으로 세상을 살라>,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쉽게 풀어 쓴 참된 장로교인>, 넥서스CROSS <작은 예수 성품 교실>, 브니엘 <잡지로 읽는 성경: 신약/구약편>, 두란노 <5차원 달란트 교육>, 한국장로교출판사 <특별한 휴가> 등 9권이다.

우수작 청소년 국외 부문은 규장 <모든 것이 가능하다>, 생명의말씀사 <청소년이 알아야 할 5가지 사랑의 언어> 등 2권이다.

역사 접속된 신앙 경험 통해 오늘 살기에 든든한 보탬

이용도 목사 365 묵상집: 진리를 드소서



이용도 목사 365 묵상집
이용도 | 정재현 편저
행복미디어 | 1,064쪽

동지들의 증언, 집회 참석자들의 간증 등을 통해, 독자들은 믿음의 조상들이 고난 중에 붙잡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접할 수 있다. 책은 이용도 목사와 동지들의 글에 나오는 지명, 인명, 용어, 한자 등에 간략한 해설도 곁들였다.

정재현 소장은 “이용도 목사의 이야기는 그의 첫 책이 출판된 1934년부터 오늘날까지 조금도 퇴색되지 않고, 오히려 더욱 힘차게 전파되고 있다”며 “거기에 담긴 한국적 예수 신앙을 접하면, 독자들은 그것을 자기의 사건으로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역사에 접속된’ 신앙을 경험하고, ‘그분들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는 사건을 통해 ‘오늘 살기에 든든한 보탬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묵상집은 365편의 묵상을 담고 있다. 이용도 목사의 글이 먼저 나오고, 필요할 때는 정 소장이 해설과 주석을 곁들여 ‘여행 가이드’처럼 독자를 본문의 세계로 안내한다. 묵상의 끝에는 때때로 기도문을 덧붙였다. 이용도 목사에게 깊은 감동을 받았던 목회자, 장로, 선교사, 교수, 권사, 청년 등의 간증도 들어 있다. 추천사는 원로 및 현직 목회자와 교수 등 감리회, 미 연합감리회, 예장 합동, 호헌, 그리스도의교회, 예수교회 공의회 등 교파를 초월하여 여덟 사람이 썼다. 추천사도 하나의 글로 읽힐 만큼 분량이 적지 않다.

이용도 목사는 독립운동가, 감리교 목사, 부흥사, 예수교회 창립자이며 1901년 4월 6일 황해도 금천에서 출생했다. 1915년 개성 한영서원에 입학했고, 1919년부터는 독립운동으로 4차례 수감되었다. 1924년 협성신학교(현 감리교신학대학교)에 입학하고, 1928년 1월 졸업한 뒤 강원도 통천에서 사역했다. 1928년 11월부터는 강원도를 중심으로 남감리회 원산지방에서 활발하게 부흥회를 인도하며 선풍적인 기도운동을 일으켰다. 1931년부터는 그의 부흥회를 통해 각처에서 뜨거운 기도운동과 전도운동이 일어났다. 그러나 그의 이름이 높아지고 성도들의 기도열과 전도열이 높아질수록 이를 질시하는 교관자들의 분노열도 높아졌다. 이 목사를 따라 한국교회를 개혁하려던 초교파적 세력들은 기성교회로부터 내침을 받았고 1933년 6월 한국 자생교단인 ‘예수교회’의 창립을 선언했다. 이 목사는 1933년 10월 2일 원산에서 서른셋을 일기로 주님의 품에 안겼다.

독립운동가이며 목사, 부흥사, 예수교회 창립자였던 고 이용도 목사(李龍道, 1901-1933)의 일기와 편지, 설교, 묵상, 일화 등을 매일 한 편씩 접할 수 있는 묵상집이 발간됐다. <이용도 목사 365 묵상집: 진리를 드소서>는 33세의 짧은 생을 살았지만 예수 신앙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보여준 이용도 목사를 묵상집으로 되살려냈다.

최근 이용도믿음학연구소를 설립하고 소장으로 사역중인 정재현 씨는 “오늘날 한국교회에 대해 실망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흔한 일이 되었는데, 이런 ‘위기’ 상황에 이용도를 제시하려 한다”며 “이용도 목사는 한국교회를 병들게 하는 세속화와 교권투쟁, 기독 없는 기독교, 비복음의 횡행 등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낼 ‘구원주수’”라고 말했다. 본인이 만 33세이던 해에 이 책을 편집한 정 소장은 “이용도 목사는 이미 85년 전 조선교회 내 이러한 위기를 인식하고 철저한 신앙으로 그것을 극복코자 했었기에, 그를 보면 배우고 얻는 것들이 많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용도 목사 365 묵상집: 진리를 드소서>는 무려 1,064쪽에 달한다. 정재현 소장은 2014년 <이용도 목사 평전: 기독교의 재출발>과 <이용도 목사 시편: 주님이 들어오시는 문> 등을 펴내며 이용도 목사의 한국적 예수신앙을 널리 소개했다.

정재현 소장은 “이용도 목사 전집이 복원되는 것을 천명(天命)으로 알고, 전집이 온전하게 복원되어 한국교회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한국인의 몸에 맞는 신앙 동력이 풍부하게 공급되기를 바란다”며 “이용도 목사 평전이나 시편, 묵상집은 전집 복원으로 향하는 과정”이라고도 했다.

책에 나오는 이용도 목사와 동지들의 편지, 그의 일기, 설교문, 전기,

북한간부의 하나님을 만나기까지와 순교한 스토리
- 우리의 회개와 동족들의 마음을 얻어 통일의 꿈을 줄 두 권의 책 -

- 구입: 미주두란노와 기드온동족선교회 (\$20/권당)
- 문의: (425) 775-7477, www.gideonbrothers.org
gbmwusa@gideonbrothers.org (온라인주문가능)
- 주소: GBMW (체코머명과 우편수취명 동일)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앞서는 젊은 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남자 헤어컷 \$8
매주 목요일에는 남자 헤어컷을 \$8에 해드립니다. 미리 예약하시는 분에만함. *헤어칼라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편리한 위치 -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컷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 칼라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헤어칼라 전문점

헤어칼라
\$40 up **\$20** up

단, 칼라만 하시면 \$40

매직스레이트
\$120 up

프로세서날-엘라 제품만 사용합니다
광고에 사용한 모델의 헤어 칼라는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엘라 제품으로 칼라한 실제 사진들입니다.

WELLA PROFESSIONAL SEBASTIAN

앞서는 멋쟁이들이 찾는 곳
my stylist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 영업시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0:00 AM ~ 8:00 PM
Tel: 213-739-1022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빠른 송금·환전 빠른 송금·환전

미국 <.....> 한국 ₩

7 Days 24 Hours T.(213)400-6363

CD PRINTING 323.265.0244 junimedia@gmail.com
 www.junimedia.com

교회학교, 부흥회 시디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장,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
 1,000장 \$350
 3,000장 \$950 (3천장 이상시 디자인무료)

\$160 (디자인 포함) Retractable Banner \$140 Stand X-Banner \$65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엮습니다.

- 대상: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미용인도 OK)
- 회비: 월 \$10
- 강사경력: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213.392.2323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 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213)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리프팅 라인·지방분해

최신장비도입
 *리프팅 라인 4회 \$999
 *부분지방 분해 5라인 8회 \$999

•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에 7파운드~25파운드 감량

- 각종 피부병과 아토피
- 습진 화농성 여드름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213)380-7800

치아 파우더 3대째 기업으로 이어온 영선한의원
 잇몸 시큰거림 풍치예방 3달분 \$60

배 빠는 속변약! 먹으면서 체중을 줄이고, 몸 전체에 부종이 빠지는 약
한달 \$50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 월~금:10시~5시/ 토 10시~2시

www.sellacare.com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 세트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영양제

서울대학병원/암센터내 샐러케어 안암병원내 샐러케어

혈액 · 혈관 · 기운 · 면역

- ✓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혈액 내에 영양을 공급하여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함으로서 무슨 병이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 ✓ 세계 특허(특허번호 51281391) 공법으로 제조되어서 복용 후 체내 흡수율이 다른 제품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흡수율 92-96%)

유태인 특수영양제 M3세트
SELLA CARE
 제품상담문의 213.435.9600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눈으로 직접 확인 하세요!
 병치로와 장수의 시작은 피를 맑게 하여 알칼리화 시키는 데 있습니다.

산성	중성	알칼리성
3.5	6.0 7.0 8.5 9.0 9.5	10

많은 영양제중 M3만이 알칼리 테스트(PH Test)에서 최고 품질 보라색으로 변합니다



주님이 붙잡히셨던 동굴에 세워진 기념교회



동굴교회의 내부 모습

■ 영성으로 가는 성지순례 이야기(62)

겻세마네 동굴에서 스테반 교회까지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셨지만 중요한 자리에는 세 명의 제자만 동행시켰다. 마지막 겻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에서도 여덟 명의 제자들은 주님의 기도 장소에서 조금 떨어진 자연동굴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들이 기다리는 동안 무엇을 했는지에 대하여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들도 최후의 순간이 다가왔음을 감지하였을 것이다.

군인들이 주님을 체포하려고 하자 베드로가 나섰다.(눅22:40-46) 대제사장의 종 '말고'가 베드로의 칼에 맞고 귀가 잘려나갔다. 모든 사람들이 당황한 가운데 주님이 종의 귀를 들고 본래 자리에 붙여주셔서 하신 말씀이 "이것까지 참으라"였다. 당장이라도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이 자리를 모멸할 수도 있지만 주님은 온 인류의 죄 사함의 길을 위하여 순순히 어린양이 되시기를 원하셨다. 주님은 이 길을 가기 위하여 준비되었지만 제자들과 사람들은 이 주님의 길에 동참할 준비가 되지 못한 것이다. 과연 어느 길이 우리에게 맞는 길일까? 주님의 고난의 길에 참여할 것이 무엇인가? 이 상황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 힌트를 준다.

주님이 잡혀가셨던 이 동굴은 만국교회에서 나와 오른쪽 계단을 타고 내려가면서 마리아 무덤교회를 보고 다시 오른쪽으로 좁은 골목 같은 곳으로 약 15m 정도 들어가면 나온다. '사도들의 동굴(길이 17m 폭 9m)'이라고 부르는 이곳에서 4세기에 비잔틴 교회로 사용되어진 흔적이 보인다. 그러나 세월의 흐름에 따라 오랜 세월 동안 방치되어 있다가 1392년 이후로부터 로마교

회의 소유가 되어 기도자들이 찾아 오기 시작했다. 1959년 로마교회에서 동굴교회를 아름답게 꾸며놓았다.(열두 제자들과 기도하는 예수님, 유다의 키스, 성모 마리아의 승천 등 프레스코화)

"이것까지 참으라"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 주님이 잡혀가실 때 뿔뿔이 흩어져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제자들의 슬픈 모습이 자꾸만 떠오르게 된다.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무덤교회

겻세마네 동굴교회 앞에는 마리아 무덤교회가 있다. 이곳은 비잔틴 기독교 시대에 겻세마네 동산의 '사도들의 동굴'과 함께 예루살렘의 유대 그리스도 공동체에 의해 보존되어 왔다. 마리아의 죽음과 무덤에 대하여는 성경에 언급이 없다. 다만 초대교회의 전승으로 당시의 일들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전승에 의하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 모친 마리아를 에베소로 모시고 가서 말년을 그곳에서 보낸 후 생애를 마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보다 앞선 초기 교회 전승에는 마리아가 예루살렘에서 죽고 이곳에 장사 지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초기 교회의 전승에 따라 기원후 431년 에베소 공의회에서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로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에 영향을 받아 기원후 422-458년경 성모 마리아의 매장과 승천을 기념하는 교회를 세웠는데 바로 겻세마네 동산의 마리아 무덤교회다. 1130년 십자군 시대에 이 교회는 아랍의 살라딘에 의해 파괴되고 1363년부터 프란체스코회에서 관리해 오다 1757년

그리스정교회에게 관리권을 넘겼다.

현재는 그리스정교회와 아르메니아정교회가 공동 관리하고 있다. 교회 입구에서 내려가는 양옆에 마리아의 부모의 묘도 있고 요셉의 무덤도 있다. 48개의 계단을 내려가면 마리아의 무덤을 볼 수 있다. 1950년에 와서 로마 교회의 교황 비오 12세는 "마리아는 죽지 않고 승천하였다" 하여 마리아 무덤교회나 시온 산의 영면교회는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위대한 순교자 스테반의 무덤

스테반 교회는 겻세마네 동산의 동굴교회에서 나와 약 200m쯤 서쪽으로 걸어가면 나온다. 원래 스테반 집사는 예루살렘 성 양의 문 쪽에서 돌에 맞아 거의 죽게 되었다가 현재 교회가 있는 장소에서 죽었다고 한다. 그 장소를 기념해 스테반 교회가 5세기경 세워졌으나 614년 페르시아의 침공으로 무너지고 방치되어 오다 19세기 말에 그리스정교회에서 교회를 건축하였다 한다.

스테반(그리스어로 완관, 면류관이라는 뜻)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출한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고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다. 대부분의 순례객들은 스쳐지나가는 곳이지만 초대교회에 큰 공헌자였던

스테반 집사의 생애에 대하여는 그냥 스쳐가는 정도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스테반의 피의 순교가 오늘날 교회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음을 기억하는 장소가 되었으면 한다.

영광과 눈물의 키드론 골짜기

키드론 골짜기는 감람산과 예루살렘성을 나누는 큰 골짜기이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큰 골짜기를 이룬다. 남쪽으로 내려오던 골짜기는 서쪽에서 내려오는 힌놈의 골짜기와 만나 35km쯤 흘러 사해로 나가게 된다.

힌놈의 골짜기와 더불어 예루살렘성의 천연적 방어선이기도 한 이 골짜기는 많은 사연들을 가지고 있다.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성으로 들어가려면 이 골짜기를 건너야 한다. 키드론 골짜기 남쪽 끝자락에 다윗 왕의 처음 도성이 있다. 이스라엘 열왕시대에 우상 숭배 지역이기도

하고, 다윗이 암살품의 반란을 피하여 맨발로 도망치던 곳이기도 하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곳을 지나 예루살렘성으로 임성하는 길목이기도 하다. 이 골짜기는 키드론 밭(왕하 23:4), 왕의 골짜기(삼하18:18), 키드론 시내(렘31:40), 여호사밧 골짜기(욥3:2)로 불리던 곳이기도 하다.


이곳에는 고대의 무덤들이 많이 있는데 암살품의 무덤과 여호사밧 왕의 동굴 무덤, 제사장 헤질의 가족 무덤 등이 있다. 그래서 키드론 골짜기를 '왕들의 무덤 골짜기'라고 하기도 한다. 마지막 심판도 이 골짜기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전승이 있어서 유대인, 기독교인, 무슬림들의 공동묘지가 형성되어 있기도 하다. 예수님은 미문을 통해 성전에 들어갈 때와 겻세마네 동산으로 나가실 때 이 골짜기를 건너 다니셨다. 메시아가 엘리야와 함께 심판하러 오시는 골짜기로도 알려져 있다. (계속)



서병길 목사 전 GMS 파송 이스라엘 선교사 풀러신학교 선교목회학 박사



스테반 교회의 모습



미주 크리스천 신학 대학교(원) 2018년 봄학기 신(편)입생 모집

3월 22일 개강

참, (진리의 길)
알, (학문의 길)
살, (십자가의 길)

본교 지원시 특전

- 1) 기독교 복음 선교 연합 총회(미주네), 개혁 장로회 한미 연합 총회 (한국과 미주)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 대학(BA)과정이나 교역학 석사(M.Div)과정 지원자는 첫 등록학비에 80%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 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입학상담: 213-272-6031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276 S. Rampart Blvd. L.A, CA 90057

치유와 회복이 있고
꿈과 사랑이 가득한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수요
치유예배

Healing & Happiness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라
-요한복음 15장 7절-

나눔과 섬김의 교회

SHARING & SERVING CHURCH
276 S. Rampart Blvd. L.A, CA 90057

“하나님과 사람 중 누구를 기쁘게 할지, 스스로 물으세요”

[킹덤컴퍼니 경영사례] (주)유성비앤아이 유래현 대표 인터뷰

25세에 300만 원으로
패션 소재 제조업 시작
한·중·베트남 3개국 기업 운영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 없어

충남 예산, 가난한 농부의 9남매 집안에서 태어난 소년은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야 했다. 24세에 제대한 후에는 서울 대림동 반지하 방에서 직장 다니는 친형과 자취 생활을 했다. 어느 날 새벽 2시, 친형의 교통사고와 의식불명이라는 정전벽력 같은 연락을 받았다. 하루, 이틀이 지나도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 형을 간호하다 답답한 마음에 그는 병원 3층 옥상에 올라갔다. 깜깜한 밤하늘, 여기 저기 사망의 십자가 불빛이 눈에 들어왔다. 저도 모르게 무릎 꿇고 생긴 처음으로 하나님께 울며 매달렸다.

“하나님! 제발 형님을 살려주세요. 형님을 살려주신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사고 후 10일쯤 되던 1985년 5월 초 새벽, 형은 29세의 나이로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청년은 잠시 하나님을 잊었다. 제대로 된 직장에서는 그를 받아주지 않았고, 자본금 300만 원으로 시작한 사업은 몇 달 밤을 새워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 다른 일을 병행해야 했다.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 고단한 인생길, 몸도 마음도 지쳐버린 그는 어느 주일날 교회로 발걸음을 옮겼다. 하염없이 눈물만 쏟아졌다.

32년 전, 하나님을 다시 만난 청년은 이제 한국과 중국, 베트남에 공장을 둔 패션 소재 전문 제조 기업을 이끌고 있다. (주)유성비앤아이(유성B&I) 유래현 대표의 이야기다. 재작년엔 경영학 박사학위까지 마쳤다. 조금하지 않게, 성실하게 인내하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따라 뚝뚝뚝 걸었다. 어려움 앞에선 피하는 대신 정면 돌파했다. 다른 이들이 못 하겠다고 두 손 드는 일도, 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가능하다’고 생각했고 ‘그럼, 내가

해보겠다’라며 앞장서서 상황을 바꾸고 오히려 기업 성장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았다. 1997년 한국기독교실업인회(CBMC) 산하 청년기독교실업인회(YCBMC)에서 활동하며 성경적 경영에 눈을 뜬 유 대표는 거래처인 도매시장의 투명한 거래 문화 확산에도 일조했다. 또 2003년 안양YCBMC 2대 회장, 2014년 안양CBMC 35대 회장을 역임하며 킹덤컴퍼니 경영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지난 18일 경기 안양 유성비앤아이 사옥에서 만난 유래현 대표는 성장 배경부터 창업 초기, 회사 성장 과정과 해외 진출 계기까지 일목요연하게 설명했다. 그의 간증을 들으며 하나님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과 함께 하시며, 때를 따라서 돕는 자들을 보내주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상황과 조건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람을 신뢰해야 한다.” “믿는 자로서 성경적 경영을 하고 싶다면,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라’라는 질문을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완전해질 수 없지만, 늘 십자가 앞으로 다시 발걸음을 돌리게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 그렇게 저도 하나님과 떠나있는 시간을 자꾸 줄이려고 애쓰고 몸부림친다” 등의 말이 인상 깊었다.

-유성비앤아이를 시작하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84년 8월, 24세에 육군 병장으로 제대 후 85년 11월 20일 1인 기업을 시작할 때, 저는 기업이 라는 단어조차 몰랐고 그저 생존을 위해 일을 시작했습니다. 가정 형편상 고등학교와 대학 진학을 못해 갈 곳도, 받아주는 곳도 없어 할 수 없이 살기 위해 ‘하면 된다’는 무모한 마음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자본금 300만 원 중 200만 원은 보증금으로 30평 지하실을 얻고, 50만 원으로 기계 하나를 덜렁 샀습니다. ‘유성산업’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시작한 일은 의류에 사용되는 어깨



유래현 유성비앤아이 대표는 “첫째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는 기업, 둘째 사람을 존중하고 기쁨을 주며 사랑을 이루는 기업, 셋째 기업의 이윤을 통해 소외된 사람들을 돕고 세워주는 기업이 되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라고 말했다.

패드 제조하는 것이었습니다. 경험도 없고, 해 본 적도 없어 나름 제품을 만들어 거래처에 납품하면 퇴짜 맞기가 일쑤였습니다. 제대로 된 물건을 만들기 위해 몇 개월씩 밤을 지새면서 일을 하곤 했습니다. 수익을 못 내다 보니 제대 후 잠시 배운 비디오 영상 촬영 기술로 1년여 동안 주말마다 서울에 있는 예식장을 돌아다니며 비디오 촬영을 하면서 견뎌왔습니다. 어떤 때는 일을 하다 말고 촬영하러 가곤 했죠!

그러는 가운데 너무 힘들고 지쳐 몇 번이고 일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처음으로 시작한 일인데 여기서 포기하면 앞으로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어느 때가 될지는 몰라도 이 일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었을 때 그 사람이 나처럼 헤매지 않고 시행착오 없이 자연스럽게 일을 이어 갈 수 있다면 그것이 내게는 성공이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그때까지는 이 일을 평생 직업으로 삼자! 어차피 평생 해야 될 일이라면 어려워도 피할 수 없으니 뒤를 돌아보지 말자!’고 스스로 다짐하고, 다짐하였습니다. 그때부터 프리랜서로 하던 비디오 촬영 일을 과감히 끊고 이 일에만 전념하

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유 대표님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셨나요.

교회는 아주 어렸을 때 성탄절에 시골 교회에 한두 번 가본 적밖에 없었습니다. 육군훈련소에서 세례를 받고 군인 교회에 다니기 시작해 주일마다 출석했지만 찬송도, 성경말씀도 모른 채 매 주일 열심히 나가지만 했습니다. 제대 후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현실 앞에 교회는 곧 잊혀졌습니다.

이후 저보다 4살 많은 친형과 자취 생활을 하던 중, 형님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루 이틀 지나도 형님의 의식이 돌아오지 않아 답답한 마음으로 간호하던 중 병원 3층 옥상에 올라가게 되었는데 그 어두운 밤에 여기 저기 사망에 십자가 불빛이 환하게 눈에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털썩 무릎을 꿇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형님을 살려달라고 울며불며 애원했습니다. 만약 형님을 살려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노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는 영영 이별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협박 만 애원 반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10일쯤 되던 새벽녘에 형님은 유명을 달리 하였습니다. 그 후 저는 정말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 일은 1985년 5월 초였고, 사업은 그해 11월 20일 1인 기업으로 시작했습니다. 사업이 너무 힘들고 마음도 지쳐있는 가운데 1986년 6월 중순에 지금 출석하고 있는 서울 대림동 한돌교회에 저도 모르게 주일날 교회에 나와 앉아 있는 것을 알게 되었죠! 성년이 되어 사회에 있는 교회에 처음 갔는데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도 몰랐지만, 하염없이 울기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위로하셨다는 것을 먼 훗날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믿음 생활은 그렇게 시작하게 되었고 차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찬송도 말씀도 잘 모르지만 교회 권사님과 장로님들께서 찬양대를 하라고 권하면 그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생각하며 순종하였고, 교사를 하라고 하면 그 또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줄로 믿고 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고 말씀 배우고 알아가면서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2018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총회장 김선규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 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대학(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인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성호 박사 116261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류종길 박사, 이사장: 권광렬 목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ou.edu, aeumaster@gmail.com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CHONGSHIN UNIVERSITY THEOLOGICAL SEMINARY

캘리포니아주교육국(BPPE)인준 정식 학위 수여
수시입학(통신가능),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모집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에서 강도사 거처 목사 안수
모든 민족국제복음주의 총회에서 목사 안수
총장: 이동규 박사 학장: PASTOR YOUNG CHOI

978 S. Hoover St #201, LA, CA 90006
T: (213)386-0300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975 Wilshire Blvd. #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전: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솔로몬대학교

땀과 눈물로써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28:18-20)

총장: 박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스 박사
4055 Wilshire Blvd. #306~308, LA,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TRACS,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온캠퍼스 &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목회학, 기독교상담학 학사/석사/박사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Fax: 213 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장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 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 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유성비엔나이 직원들의 야유회 단체 사진

하나님께서 처음 나의 믿음의 발걸음을 그렇게 인도하셨고, 바로 그곳 환돌교회가 내가 평생 섬겨야 할 교회라고 믿고 지금까지 섬기고 있습니다.

-킹덤컴퍼니를 도입한 과정과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해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1997년경 고객 중 한 분이 CBMC를 소개하였고 45세 미만 실업인들이 모인 강남YCBMC 조찬기도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강남YCBMC를 방선기 목사님과 이경준 목사님이 지도하셨는데 일터사역과 성경적 경영에 대해 접하게 되었고, 영업을 하면서 성경적 경영과 사회의 현실적 문제에 직면하면서 내면의 갈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거래 상담을 하게 되면 담배를 권하며 대화를 시작했고, 술을 권하고 때로는 큰 오더를 받으려면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저는 원래 술, 담배를 못 하는 체질이라, 거래처의 무리한 요구에 응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 하나님께 '이러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대문 시장에서 장사하는 분을 만나 동대문시장, 광장시장 등 도매시장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무역회사와는 달리 영업의 어려움이 있는 곳이 아니라, 열심히 찾아가고 성실하게 방문하면서 제품을 공급하면 어떠한 요구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 역시도 성경적 경영에 충족하지 못하는 곳이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거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세금을 주지 않으며 매출누락을 요구하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주일예배와 조찬기도회를 통해 믿음의 도전을 받게 되었고, 현실적으로 성경적 경영과는 거리가 있는 문제를 극복하고 싶은 마음으로 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투명한 거래를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2001년 유성비엔나이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는 메이커 위주의 거래처를 늘리면서 아이템을 추가하게 되었고, 현재 우리 회사의 메인 아이터민 여성용 브라지어 몰드컵을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다. 개인기업인 유성산업과 거래하는 도매시장도 서서히 세금계산서를 발행받는 곳만 거래하도록 유도해서 현재 도매시장도 투명하게 개선되었습니다.

사업 확장을 위해서는 2008년 중국 상해 인근 자싱시에 유성복식유한공사를 설립하고 2012년 베트남 호치민시 구찌읍에 유성비나를 설립했습니다. 33년 전 한국 유성산업을 시작으로 ㈜유성비엔나이, 중국 ㈜유성복식유한공사, 베트남 ㈜유성비나를 설립하여 현재 3개국에서 기업을 운영 중입니다.

-유성비엔나이가 킹덤컴퍼니를 지향하는 가운데 마주하는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어려울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 결과는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으로 인해 위기상황이 도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도 나에게 꼭 필요해서 주시는 상황이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해결점을 주시리라 믿고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는 믿음이 위기를 극복하는 힘입니다.

-유성비엔나이의 미래 비전과 기도 제목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는 기업, 둘째 사람을 존중하고 기쁨을 주며 사랑을 이루는 기업, 셋째 기업의 이윤을 통해 소외된 사람들을 돕고 세워주는 기업이 되는 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렇게 하여 먼저 고객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고, 국내의 동업계 최고의 리더 기업이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한국 기업을 통해서는 석수동과 안양과 대한민국을 섬기고, 중국 기업을 통해서는 자싱과 저장성과 중국을 섬기며, 베트남 기업을 통해서는 구찌와 호치민시와 베트남을 섬기는 기업이 되는 것이 늘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계 믿음의 축복과 가정의 축복, 기업의 축복을 많이 주셨는데, 저는 '하나님께 어떤 삶을 드려야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 오래 전부터 기도해 왔습니

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아보라는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감당할 수 없다고 대답하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그들을 섬기는 아들로써 살기 원하신다면, 세상 사람들이 저로 인해 실망하지 않도록 사회인으로 공인으로 객관성과 전문성을 갖추도록 해 달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41세 늦은 나이에 야간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고, 47세에 대학을 졸업하고 49세에 석사 학위를 받고 잠시 일에 전념하다가, 57세에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킹덤컴퍼니를 추구하는 동료 및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나누고 싶은 권면의 말씀이 있으니까.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는 창업을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다투어 물뱀들을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가 대적했듯이 환경적으로 없는 것을 염려하는 것보다 굳건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서 서서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 작으면 작게 시작하고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경영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라!'라는 말을 늘 마음속으로 자신에게 질문 하길 바랍니다. 그러한 작은 노력이 성경적 경영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는 첫 발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지희 기자



유성비엔나이는 회사의 모든 경영 상황을 직원들에게 공개하고, 직원들에게 모든 업무를 맡고 위임하며 도와주는 기업 문화를 만들어 왔다. 전 직원은 매일 한 차례 직장예배를 드리고, 해마다 불우이웃 돕기를 실천한다.

박종순 목사에게 길을 묻다

박종순 목사에게 길을 묻다

국민일보 <박종순 목사의 신앙 상담> 연재글을 모았다. 가정생활, 개인생활, 교회생활, 사회생활 등 다양한 삶의 국면에서 부딪히는 성도의 고민과 궁금증을 성경에서 답을 찾고 정통적 가치 안에서 올바른 길을 제시하고자 했다. 여러 물음에 관해 진솔한 답을 내놓는 저자 특유의 통찰력과 문체는 공감을 자아낸다.

박종순 지음 344면 / 15,000원

코이노니아 경제의 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비즈니스 선교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맘몬이 지배하는 현실과 맘몬에 지배받는 우리가 아닌 맘몬을 다스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경제학을 배울 필요가 있다. 성경적 가치관 안에서 소명을 점검하고 코이노니아적 관점으로 경제를 바라보는 방법을 설명한다. 더불어 선교하는 미션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바람직한 태도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제 운영에 관한 관점은 무엇인지 제시한다.

이강천 지음 288면 / 12,000원

코이노니아 경제의 꿈

중세교회사 I, II

신약교회 사관에 의한 중세교회사 I, II

정수영 목사의 교회사 시리즈

중세교회사 1권은 1000년 동안 유럽 세계를 암흑으로 이끌어 간 타락과 부패의 역사를 박탈해 교황의 역사, 유럽교회의 역사, 주류교회와 다른 소수 교회 역사를 신약교회 사관에 의해 알아보고 교황들이 과연 신앙에 부합한 무리들이었는지 살펴보았다.

2권은 17세기 이내 유럽의 선교 역사, 동방정교회의 역사와 신학, 중세기 수도회 운동, 십자군 전쟁, 중세기 미신 신앙, 스킨라 신학과 신비주의 신학, 암흑 속에서 개혁 추구, 분리 교회의 역사 내용을 다뤘다.

정수영 지음 1권 484면 / 23,000원 · 2권 920면 / 40,000원(신국판 양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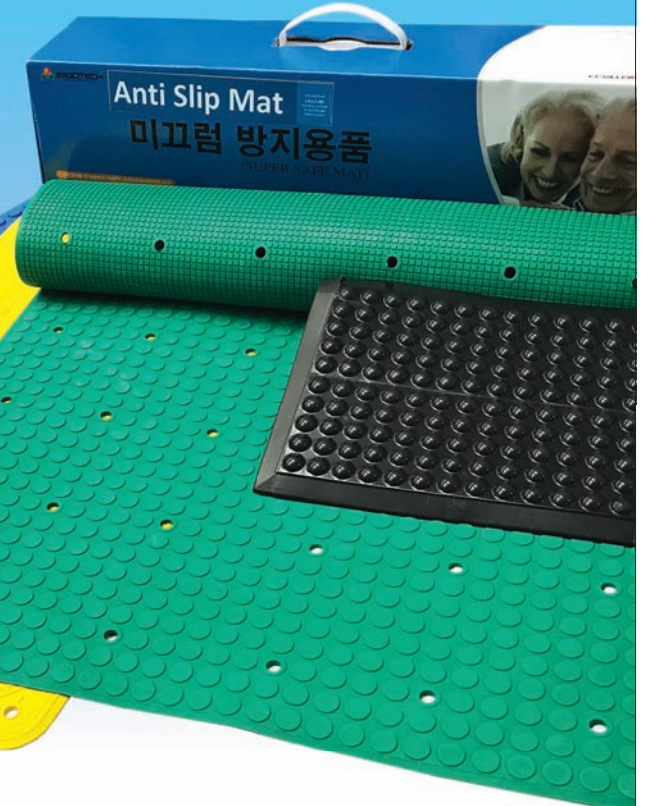
피로야 가라!

피로방지매트

(Prevent Fatigue M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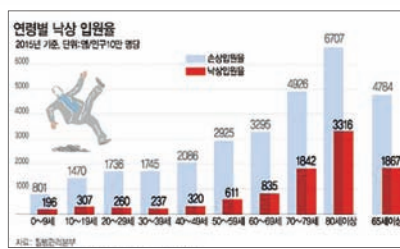
인체공학적 설계를 바탕으로 제작된 피로방지 매트(Prevent Fatigue Mat)로서 일하는 곳 바닥에 탄력적인 표면을 제공하여 서서 일하는 분들의 근골격계 질환을 현저하게 예방하고 피로로 인한 만성질환에서 벗어나게 해 드립니다.

70%이상 피로 감소, 피로방지, 혈액순환, 하지정맥류 개선, 작업안전 증대, 미끄럼 방지, 충격흡수, 생산성증대, 노종자 보호, 관절보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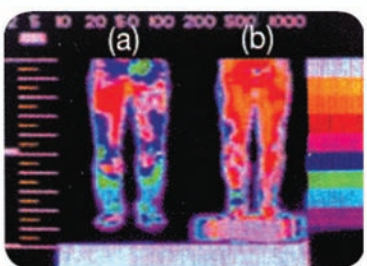
목사님!
목회자
특별한인 혜택
편안하게 피로방지매트에서
설교하세요!!!

- 서서 설교하실 때 충격흡수를 시켜 관절을 보호하고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며 피로를 줄여드립니다.
- 바닥에 앉아 기도하실 때 **기도매트**로 좋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미끄러지지 마세요!!!

- 미끄럼에 의한 골절과 상해로 인한 사망률이 높다는 것은 다 아시죠?
- 미끄럼방지 매트로 120세까지 건강하게 사세요.
- 침대 옆, 화장실, 주방, 거실에 설치하면 좋습니다.



열상상선을 이용한 피로방지 매트 비교실험 (혈액 순환 정도와 근육 피로도를 비교한 그림)

- (a) 피로방지 매트를 설치하지 않은 바닥의 경우
청색과 녹색이 종아리에 몰려 분포되어 나타나 있으며 이것은 현재 근로자가 원활하지 않은 근육활동과 혈액순환으로 피로를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b) 피로방지 매트를 설치 한 경우
붉고 노란색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으며 피로방지 매트의 독특한 인체공학적 설계의 탄력적 특성과 재질로 인하여 근육 및 혈액의 순환이 원활한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미국판매기념 특별세일

<p>E- MAT</p> <p>피로방지용 사이즈 3ft + 2ft \$123 +tax \$176 30% Off</p> <p>* 사이즈와 모양을 설치 장소에 맞게 만들어 드립니다.</p>	<p>SAFE KOREA MAT</p> <p>케어프리매트 (Safe Korea Mat) 사이즈 80cm+40cm \$75 \$60 +tax</p>	<p>NEW SUPER SAFE MAT</p> <p>슈퍼케어프리매트 (Super Safe Mat) 사이즈 92cm+42cm \$90 \$72 +tax</p>
	<p>SAFE MAT</p> <p>사이즈 80cm+40cm \$95 \$76 +tax</p>	<p>SUPER SAFE MAT</p> <p>사이즈 3ft + 2ft \$145 \$116 +tax</p>

약국, 식당 주방, 가정집, 일반 소매점, 웨얼하우스, 메뉴팩처, 디자인 하우스 등 서서 일하는 모든 사업장 자동차 공장 등 산업시설에 근로자 보호를 위해 피로방지 매트(Prevent Fatigue Mat) 설치



CVS Pharmacy (Wilshire + Western)

Hyundai Motors, Kia Motors, GM Korea, Renault Samsung



구입 문의 **213.434.1170**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A, CA 90005

PRO-Z USA Inc.
프로지 유에스에이